

서울대 일본연구소 제2회 관정학술회의

코로나19와 COVID-19 일본

이상주의와 현실주의가 공존하는 한일의 코로나19 현장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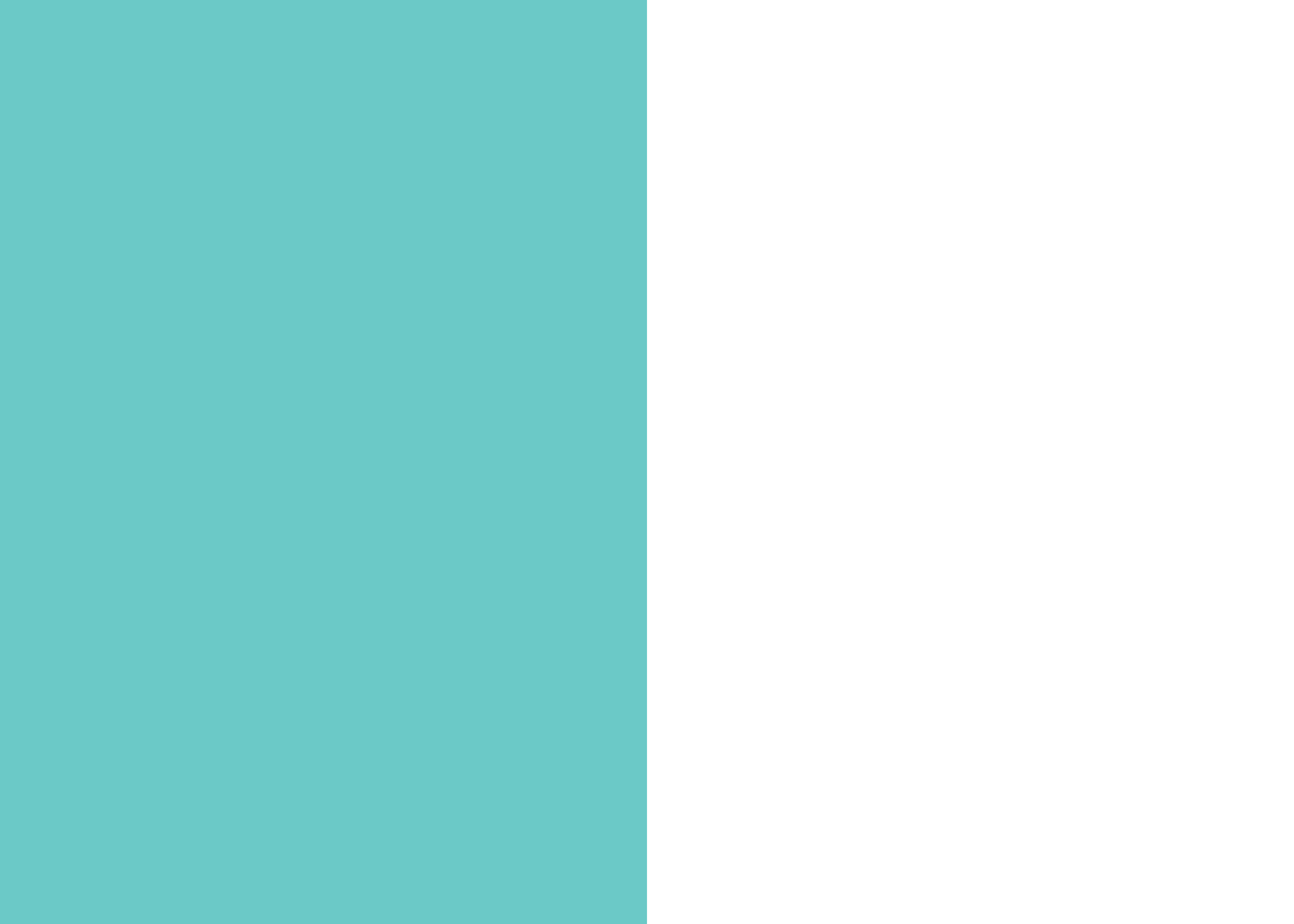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동북아 질서 변혁과 한일협력 가능성

코로나 위기 속의 일본정치: 국가전략의 연속, 그리고 재편의 가능성

코로나19의 충격과 일본경제

팬데믹 이후의 일본사회: 재난, 불안과 자숙, 올림픽





서울대 일본연구소 제2회 관정학술회의

코로나19와 COVID-19 일본

목차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관정일본연구 제2회 학술회의

코로나19 COVID-19와 일본

제1부 사회 **조관자**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 — 09

환영사 **김현철** 서울대 일본연구소 소장 — 10

축사 **가토 다케시(加藤剛)**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소장 — 12

기조강연 **김태형**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 16
이상주의와 현실주의가 공존하는 한일의 코로나19 대응

발표 1 **남기정**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교수 — 36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동북아 질서 변혁과 한일 협력 가능성

발표 2 **박정진** 쓰다주쿠대 교수 — 50
코로나 위기 속의 일본 정치: 국가전략의 연속, 그리고 재편 가능성

제2부 사회 **이은경**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 — 63

발표 3 **이창민** 한국외국어대 교수 — 64
코로나19의 충격과 일본경제

발표 4 **박승현** 서울대 일본연구소 연구교수 — 82
팬데믹 이후의 일본사회: 재난, 불안과 자숙, 올림픽

지정토론 1 **심규선** 전 동아일보 대기자, 서울대 일본연구소 객원연구원 — 102

지정토론 2 **호리아마 아키코** 마이니치신문 서울지국장, 서울외신기자클럽 회장 — 111



제1부 사회 및 개회사

조 관 자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서울대 일본연구소가 주최하고 관정이중환교육재단이 후원하는 제2회 관정학술회의, <코로나19와 일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1부 사회를 맡은 서울대 일본연구소 조관자입니다. 반갑습니다. 6월에 이 회의를 기획하고 섭외를 진행할 때에는 한일 양국 모두 코로나가 진정되어서 방역에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안타깝게도 마스크를 쓰고 진행해야 하는 위기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이 할 일을 찾고 연구 과제를 새로 모색하는 그러한 자세가 더욱 중요할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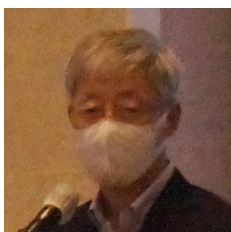
오늘 저희 회의는 YouTube 생중계로 진행되는데, 채팅 방에서 질문도 받고 있습니다. 현재 60 여 명이 참가해주고 계시는데요. 이심전심으로 오늘 우리가 한일관계의 미래의 실마리를 찾으려는 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채팅 방에 질문을 남겨 주시면 전부 응답할 수 없더라도 몇몇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온라인 회의가 처음이라서 다소 진행상에 미진한 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대 일본연구소 김현철 소장님께서 환영사를 해주시겠습니다. 김현철 소장님 부탁드립니다.

환영사

김 현 철

서울대 일본연구소 소장



김현철 소장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발생 전부터 한일관계는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한일관계가 더욱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이제 민간교류도 중단되고, 또 무비자 입

국도 중단되는 상황이 되다보니까 그 전까지 굉장히 당연

하게 생각했던 한일 간의 정보교류, 지식교류, 인적교류도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언론에서 단편적으로 한일관계의 정보가 공유되고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본연구소는 일본의 가장 정확한 정보와 깊이 있는 분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번에 <코로나19와 일본>이라는 주제로 학술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본 행사에서는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서 순천향대학교 김태형 교수님이 한일 양국을 깊이 있게 분석해주실 것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상황에서의 일본의 정치, 경제, 사회에 관해서 쓰다주쿠대의 박정진 교수님,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이창민 교수님, 그리고 서울대 일본연구소의 박승현 교수님이 각각 분석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본연구소의 남기정 교수님이 코로나 이후의 한일관계에 대해서도 짚어 주실 것이고, 마지막으로 일본연구소의 가장 원로이신 심규선 대기자님과 호리야마 마이니치신문 서울 지국장 겸 외신기자 클럽 회장님께서 종합토론으로 오늘 세미나 내용을 깊이 있게 짚어 주실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관정이종환교육재단이 협력해주셨고 후원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일본연구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관정이종환교육재단은 흔쾌히 저희 연구를 서포트해 주셨고, 오늘 이 자리도 재단의 지대한 협력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한일관계에 어려운 상황, 그리고 코로나 국면이라는 힘든 상황에서 저희 일본연구소가 제공해 드리는 정확한 정보와 깊이 있는 분석을 향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관자

감사합니다. 갑작스러운 코로나 사태로 축사를 해주실 예정이었던 관정이종환교육재단의 김대영 부이사님께서 오늘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대신에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 주셨는데요. 저희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일본에 대한 정보에 많은 갈증을 느끼고 계실 텐데, 저희가 관정재단의 후원으로 『관정일본리뷰』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 이메일로 신청해주시면 아직 못 받아보시는 분들에게는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가토 다케시 소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가토 소장님, 부탁드립니다.

축사

가토 다케시(加藤剛)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소장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가토입니다. 오늘 제2회 관정학술회의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술회의의 개최에 임하여, 한 마디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약15년 전에 일본국제교류기금 도쿄본부에서 일본연구 지원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때 기억을 바탕으로 제 사무실에 있는 자료를 찾아봤는데, 2006년에 제가 일본에서 한국으로 와서 일본연구소를 방문했던 일이 기억났습니다. 그 당시의 일본연구소 소장은 김용덕 선생님이셨고, 정연우 실장님도 계셨습니다. 그 때 일본국제교류기금은 세계 각국에 있는 일본연구의 중점기관을 재검토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울대 일본연구소에 와서 실적과 그 당시의 현황을 확인하였고, 그 해에도 중점기관으로서 유지할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와서 딱 1년 지났습니다. 1년 동안 일본연구소에 올 기회가 몇 번 있었지만, 그 때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이 기회에 올 수 있어서 숙제를 하나 해낸 느낌이 듭니다. 지난 1년 동안 서울에 있으면서 서울대 일본연구소가 2006년 이후에도 활발히 활동하시고 한국의 일본연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국에 온 작년 8월에는 일본과 한국의 관계가 외교적으로나 국민 정

서적으로나 상황이 좋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우리가 주최하는 행사도 몇 개 취소되었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일본과 한국의 관계는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다고, 앞으로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일본과 한국의 사이에서 서로 간의 왕래도 줄어들고 사람 모이는 이벤트조차도 어려워질 것이라는 상상은 못했습니다. 현재 온 세계가 감염 확대 방지와 경제활동의 양립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도 예외가 아니라 이러한 상황이 길어짐에 따라서 생활방식의 많은 부분을 바꿀 수밖에 없는 시대가 도래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이런 변화를 시도하는 것은 아마도 큰 도전이겠지만, 예를 들어 일본사회에 있어서 디지털화의 추진 등 사회를 변혁시키는 좋은 기회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학술회의에서는 지난 반년 간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와의 싸움을 되돌아보면서 동북아시아 지역, 특히 일본에 대한 영향, 한일관계에 대한 영향이 논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미래 선택을 해야 할지 이정표가 될 논의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회의 개최에 많은 도움을 주신 관정이중환교육재단, 그리고 코로나 제2차 대유행이 확산되는 가운데 갑작스럽게 온라인 회의로 전환하게 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회의를 실현하신 일본연구소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저의 축사를 마치겠습니다.

가토 소장님께서 한국어가 너무 유창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조강연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3월 한일의 언론에서 서로의 코로나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이 격하게 부딪혔습니다. 한국에 보도된 일본은 노후하고 정체된 모습이었다면, 일본에 보도된 한국은 다소 억압적인 감시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저희는 일본 정부의 소극적인 의료방역정책을 국제사회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한일 양국의 방역정책의 차이가 실제로 어떠한지 의료전문가에게 한 번 진단을 받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어를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었고, 그리고 실제로 일본 현지조사도 불가능한 상태라서 저희가 섭외를 하게 된 분이 김태형 교수님이십니다. 김태형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나오셔서 서울아산병원 감염내과 임상강사를 거쳐서 울산대학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셨고, 캐나다 맥마스터대학교 감염내과에서도 임상연구 전임의로 근무하셨습니다. 현재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내과교수로 재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김태형 교수님의 ‘이상주의와 현실주의가 공존하는 한일의 코로나19 대응’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관정일본연구 제2회 학술회의
코로나19 COVID-19와 일본

기조강연

이상주의와 현실주의가 공존하는 한일의 코로나19 대응

김 태 형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귀중한 자리이고 진지한 토론을 하는데 일본에 대해서 무지한 것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염병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옆 나라를 좀 더 이해하고 알았어야 하는데, 팬데믹 상황이라서 저희가 많이 배울 수 있는 일본에 대해서 알아볼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감염내과 의사로서 저희가 경험했던 우리나라 정책을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한일 두 나라가 서로 상당히 미워하는 바가 있었지만, 문화적으로 차이점보다는 유사점이 많은, 그래서 서로의 방역하는 모습을 배우면서 성찰할 수 있는 사이입니다. 또한 우리가 현대의학을 일본을 통해서 처음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뿌리와 공유하는 부분이 많다는 것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제목은 거창하게 ‘한일 코로나19 현장이야기’라고 했는데 임상 의사로서의 경험을 담백하게 말씀드린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동북아시아 문명권에 대해서

영어로 COVID-19인데 우리말로 코로나19(일구)라고 흔히 말하는 이유는 동양문화권에서는 19가 숫자보다는 一九라는 문자로 인식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 뇌리 속에는 갑신년 병자년 하는 것처럼 연도를 보는 관점을 서양 사

몇 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인류는 반드시 극복하고 어느 시점에서인가는 종식을 맞이하고 과거와 같은 삶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감염내과 의사가 보는 완벽한 기준보다는 일반인들이 보는 관점에서, 받아들여질 만한 수준으로 온 국민들이 위험을 인지하고 위험을 최소화하는 전략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은지 저는 생각합니다.

람들과 달리 숫자가 아니라 하나의 문자로 인식합니다. 한일이 이런 비슷한 습관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인문학적으로 우리의 극동아시아, 동북아시아의 문화에 대해 조금 성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역사적 배경이 어떻게 다른지 말씀드리려고합니다. 서울과 베이징 사이에는 40개가 넘는, 언어와 민족이 서로 다른 Ethnic group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사이에는 많은 나라가 있을 법도 한데, 지금 한국 외에는 중원으로부터 독립을 유지한 나라가 없습니다. 일본은 상대적으로 자생적인 근대화를 하고 서구문명을 진취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반면에,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중국 대륙으로부터의 독자생존이 치열한 숙제였습니다.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하자면 우리 조상들은 나름의 소중화사상(小中華思想)을 가지고 ‘우리가 작은 중국이다’라는 생각을 했으나, 일본은 아마도 ‘우리는 새로운 중국이다’라는 관점으로 근대국가가 된 것 같습니다. 과거의 이러한 관점은 우리가 현재 미국의 의학을 보는 관점과도 일치합니다. 일본 의사들에 비해서 한국 의사들은 미국 중심의 주류 서양의학계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일본은 자기의 경험을 중시하는 반면에, 우리나라 의학계는 글로벌한 트렌드를 중시합니다. 그런 취향은 때로는 우리에게 단점이기도 했고 때로는 일본에 비해서 이점일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사회학 전공이셨던 아버지께 배운 것은 우리나라는 진보와 보수의 두 가지 사상이 항상 공존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이방원의 「하여가(何如歌)」와 정몽주의 「단심가(丹心歌)」를 봅시다. 우리 역사에서는 항상 이 대립하는 두 가치가 서로 공존하면서, 때로는 나라를 좌로 때로는 나라를 우로 이끌어 오면서 발전했습니다. 70년대 한 시인이 우리의 이런 양가정서를 다보탑과 석가탑으로 비유를 했었습니다. 둥글둥글한 온화한 다보탑이 보수를 상징한다면 마주 보고 있는 직선적인 석가탑이 진보를 상

징합니다. 우리나라 의료도 그러한 균형이 있어 보입니다. 한국은 대만이나 일본과 유사한 국민의료보험 체계 등 국가 주도형 의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료의 재원은 민간보험에 의존하는 미국과 달리 National Funding으로서 국가건강보험이라는 큰 단일 국가보험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 의료기관은 90%가 민간 의료기관입니다. 국가중심의 사회주의 의료가 강한 캐나다, 뉴질랜드 등의 나라라면 국가가 주로 큰 병원을 운영하지만 서울은 어떨까요? 큰 민간 대학병원들이 국민들의 중증 환자 진료를 주로 담당합니다. 우리나라는 말씀드리자면 공산주의 의료와 자본주의 의료의 혼합형입니다. 한국은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도 방역에서 국가가 중심이 된 점이 장점으로 작용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아프시면 무료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습니다. 이는 의료의 재원을 국가가 관리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한국이 5,000년 역사를 가진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의 근대문명의 역사는 짧습니다. 왜냐하면 일제강점기와 전쟁으로 초기화가 되었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한국의 근대 문명은 단절을 경험한 후 다시 시작된 문명입니다. 자랑스러운 것이 있다면 그래도 신속한 따라잡기 근대화 과정에서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했다는 측면입니다.

2. 한국에서 2020년까지 무슨 일이 있었나?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이 왜 상대적으로 강경했는지를 설명 드리려면 한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되짚어 봐야 합니다. 2015년 한국에는 메르스라는 큰 바이러스 유행이 있었습니다. 본디 메르스는 Middle East, 즉 중동 바이러스였으나, 한국이 중동 이외의 지역에서 큰 규모로 유행한 유일한 나라여서 우스갯

말로 Far East 바이러스라고 바뀌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전 해인 2014년에는 세월호 사고도 있었습니다. 진보적인 분들의 생각과 보수적인 분들의 관점이 다르겠지만, 공통적인 교훈은 정부의 위기 소통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는 점과 한국이 선진국인 줄 알았는데 인명구조 시스템은 아주 열악했었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교훈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메르스가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병원이 숙주가 되는 엄청난 사건이었고, 대형 의료기관 자체가 상당한 취약성을 보였습니다. 바이러스의 유행은 불가피했다라도 의료기관의 방역이 부실했고 병원명과 동선의 공개가 투명하지 못해 아쉬웠습니다. 우리는 슈퍼전파 사건이라는 경험을 했는데, 한 병원에서 100명이 넘는 환자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두고두고 이것은 감염내과 의사들한테 상당한 수치심과 트라우마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방역시스템이 이것밖에 안 된다는 좌절감을 경험했습니다.

3. 한국과 일본 의학의 유사점과 차이점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 제가 경험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두 나라는 축구할 때는 절대 서로 양보할 수 없는 확실한 숙적입니다. 그러나 다른 문화권에서 볼 때는 혈통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유사한 부분이 더 많습니다. 한국인과 일본인들은 피를 뽑아서 유전자를 분석해 보면 90% 이상 가깝다고 하므로, 과연 우리가 서로 그렇게 미워할 이유가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비슷한 사람들이 서로 다른 역사적 환경에서 적응하며 살다 보면 서로 다르게 보이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이해를 갖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사람들이 어려운 문제를 결정할 때, 가령 한국에서 신라시대라

면 부족이나 제사장들이 했었을 거고, 고려시대에는 불교와 호족들이, 이후 조선시대에는 상당히 오랫동안 성리학을 받아들인 철학자가 결정을 하였습니다. 일본도 같은 시기에 여러 막부정부들이 성리학을 기반으로 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겠지요. 이후 자본을 가진 자들이 지배를 했고 우리는 특히 일본 제국주의에 복속됐던 슬픈 강점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사람들은 이 모든 사람들과 싸웠던 분들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코로나19나 메르스나 중요한 권력을 가진 정부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현장에서 필요한 사람들은 힘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식이 있는 전문가들입니다. Experts, Professional 이런 전문가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저는 미개하지 않은 문명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학은 근거중심의 기반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개인 전문가의 경험과 외부적인 근거지식(External Evidence)을 융합해서 환자를 치료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19 때 마땅한 치료제가 없다는 의미는 임상 연구의 결과들이 부족하여 외부적인 근거가 없다는 한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한점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신하는 음모론이나 개인 전문가가 실험해보겠다는 시도는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저는 일본을 세 번 가봤습니다. 학회에 연구결과를 발표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몇 가지 느낀 두 나라 학회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의 학회는 매우 다양한 의견이 많고 젊은 선생님들 목소리가 강하고 실험정신이 강하여 불안정해 보입니다. 반면에 일본 학회의 선생님들을 매우 예의 바르시고 원로교수님들을 매우 존경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일본은 자국의 전통을 과도하게 중시하는 반면에, 한국은 우리 스스로를 의심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자국어 교과서를 만드는 데에 많은 시간을 쓰지 않았습니다. 외국에서 나오는 어떤 새로운 지식을 우리말 교과서로 번역하는 시간에 차라리 새로운 논문

하나를 쓰는 것이 낫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지식들이 들어오면 그때마다 번역하기 보다는 있는 그대로 이해한 후에 스스로의 환경에 맞는 지침을 나중에 만들어서 적응합니다. 한국은 북미, 유럽, 일본 등 다양한 지역에서 좋은 것들이 나오면 전주어 보면서 나름대로 중간을 선택하는 지혜를 가질 때가 많습니다. 반면에 일본은 자국어 중심의 의학이 오랫동안 발달했기 때문에 미국 가이드라인이나 유럽 가이드라인보다는 자국의 가이드라인, 자국의 지침, 자국의 교과서가 반드시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의 역사가 길다 보니, 그 안에서만 토론합니다.

한국은 토론을 할 때 External Evidence에서 정반합을 찾으려고 하고 한참 후에 국내 상황을 돌아보면서 ‘아차,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안 맞는구나’라는 식으로 반응합니다. 일본은 오랜 전통의 자국의 경험과 원로들의 생각을 존중하다가 한참 후에 외부 지침의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1970년에 미국의 Monto AS라는 분이(최근까지도 논문을 쓰시는 훌륭한 분) Tecumseh 지역 학교에서 독감백신을 맞으면 급성 호흡기 감염이 줄어든다는 연구를 하여, 이것을 근거로 학교 백신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본과 미국의 학교 백신 정책을 비교하면 미국은 정확히 1970년도의 Tecumseh 연구 이후로 독감백신의 사용량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 팬데믹에 이르기까지 그 중요성이 더 강조되었습니다. 반면 일본은 이미 1960년대부터 학교 백신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독감백신의 사용량이 미국보다 일찍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뚜렷한 근거와 연구결과 없이 시작되었기에 이후 1980년 말에는 (외부적으로 볼 때는) 특별한 근거 없이 학교 독감백신이 중단되었습니다. 물론 일본도 2009년 이후 다시 학교 백신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서 사용량이 증가했습니다.

일본의 주류 의학계는 당연히 근거중심 사고가 강하고 한국보다 기초의학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류 의학계가 아닌 일부 의학과 일반인 사이에서는 비약물적 중재를 중시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보다 일본 사람들은 위생에 대한 개념이 더 강해서 손 씻기, 마스크, 양치질하는 문화가 보편적입니다. 사실 우리한테도 일본의 영향인지는 모르겠으나 유사한 문화가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보면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똑같이 양치질을 잘 한다고 보겠지만, 우리가 느끼기에는 일본이 더한 편입니다. 일본 의학계도 공식적으로 지지하지 않지만, 예를 들면 양치질 같은 비약물적 요법이 인플루엔자나 코로나19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에 있어서도 혹시 일본은 국민들의 뛰어난 위생에 대한 습관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잘 되는 점을 근거로 더 낙관하였던 것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한국이 일본하고 학술적인 수준에서 비교되기 시작한 지는 역사가 길지 않습니다. 한국연구재단의 집계에 따르면 전체 SCI 논문의 성장폭은 한국과 일본이 매우 근접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절대 수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인용되는 정도(citation)도 한일 간에 격차가 없습니다. 한일 모두가 어느덧 현재 의학 연구에 있어서 건전한 경쟁자가 된 것입니다. 제가 2012년도에 도쿄의 한 학회 때 발표했던 슬라이드인데, 한국이 여러모로 일본에 비해서는 감염관리가 뒤지고 있던 시절인데도 그해만 운 좋게 한국의 병원 폐렴의 발생률이 일본보다 낮아서 감염관리를 우리가 더 잘 한 것으로 보일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동료 일본 선생님들 앞에서 체면이 섰던 해였습니다.

저의 세대는 아니지만 한국은 일본을 통해서 서양의학을 배워왔었기 때문에 한국말 속에는 일본식 한자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민들의 입장에서 의학용어

에는 어려운 영어, 한자, 일본식 한자어들이 공존합니다. 예를 들면 ‘용이하계’, ‘예후가 불량하여’와 같이 어려운 표현들 때문에 사람들이 전문적인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지식의 독점으로부터 소외가 없어야 근대문명이 발달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근대문명을 받아들일 때, 나름 최대한 쉬운 일본어로 번역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그것을 또 차용해서 쓰다 보니 우리 전문 언어는 더 어려운 언어가 되었습니다.

4. 코로나19의 역학

코로나19 감염의 역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일곱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이고 SARS-CoV-2, COVID-19이라고 부릅니다. 대부분의 코로나바이러스는 호흡기감염을 일으키는데, 2002년 SARS-CoV가 상당히 위험했었고, 2012년 MERS(한국은 2015년)와 함께 코로나19도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스크리닝 검사, 감염관리실 활동, 검사실, 확진자 보는 병동 등 한국뿐 아니라 일본, 전 세계 어느 나라 병원이든지 아침마다 코로나19 대응 풍경은 비슷할 것입니다. 일본도 비슷한 문화가 있겠지만 재난상황에서는 원장단 단톡방이 생깁니다. 병원장님하고 각 부서장들이 단톡방에 들어와서 병원의 모든 문제들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예상하시겠지만 한국과 일본은 유교적인 문화가 강해서 감히 원장님하고 일개 직원이 카카오톡을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간호사가 “원장님 여기 N95마스크 떨어졌어요” 올리면 원장님이 “사서 보내겠습니다”라고 답을 합니다.

바이러스는 의심의 여지가 없이 중국 우한에서 왔습니다. 처음에 중국을 잘 몰랐기 때문에 우한이 중국의 시골인 줄 알았는데, 인터넷으로 보니까 서울만

큼 변화한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월 20일 대한감염학회 임원들이 대책 회의로 모였을 때 우한이 당할 정도면 서울도 안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또한 2015년에 한국이 메르스의 수모를 겪었던 것을 기억해보면 과잉대응이 결코 지나치지 않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무조건 Level-D를 입어야 되고 의심되는 사람 다 검사하자, 그런 검사비를 인정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하자는 이야기밖에 하지 않았습니 다. 그러나 아직까지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 나라가 그렇게 까지 강경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일본도 그중 한 나라였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도적으로 과소대응을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감염은 14일 정도 잠복기가 있고 주로 비말, 즉 침방울을 통한 전파를 하는데 공기 전파에 준하는 보호구 등 주의가 필요하고 무증상 전파도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쉽게 설명 드리자면, 가벼운 감기 환자들의 바이러스 양이 더 많이 배출되고, 어느 정도 진행된 폐렴 환자의 바이러스 양은 막상 적게 나옵니다. 이러한 특성이 메르스나 그전의 치명적인 바이러스들과 다른 점입니다. 또 다른 특성은 이 바이러스는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더 많이 배출된다는 것입니다. JAMA Internal Medicine에 게재된 저희 연구논문에 따르면, 천안 생활치료센터 303명 환자들 가운데 무증상인 사람과 증상이 있는 사람 간에 바이러스의 배출이 동등하였습니다. 심지어 증상이 없는 사람들은 역설적으로 바이러스 배출이 더 지연되었습니다. 그 결과 무증상 전파가 상당히 중요한 감염전파 경로의 하나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미 3월에 확보된 데이터인데 8월에 출간되었습니다. 한편 후각과 미각 이상이 유일한 초기 증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 또한 저희 증례였는데, 처음엔 무증상 접촉자로 왔던 사람이 17일차에 폐렴까지 되어서 입원을 했습니다. 사건 후에 조사해보니까 이미 이 사람에게 노출 초기부터 입에서 금속 냄새가 났었다고 합니다.

코로나19는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감염병과 매우 달라서 이 병의 유행 초기에는 누가 잘못해서 확산되었다고 말하기가 힘듭니다. 심지어 무증상 감염이 존재한다는 것도 그 실체가 훨씬 더 난제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는 고령층으로 갈수록 발생률도 높고 80대 이상은 20% 정도 사망하는 병입니다. 특히 8월 이후 노인들이 외부 집회에 많이 참석하시는데, 아직까지는 전 국민이 마스크를 철저히 쓰고,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6. 진단 검사의 전쟁

진단 검사는 병원마다 코로나19 선별 진료실이라는 것을 운영하는데, 인천의료원 감염내과 선생님 한 분이 대한감염학회 단독방에 새벽 4시에 드라이브스루 검사를 그려서 올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월부터 감염내과 의사들은 무지막지하게 검사를 하자라는 주장을 정부에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검사를 대학병원에서 다 못하니까 맥도날드처럼 드라이브스루를 만들어서 검사하자는 아이디어를 처음 내신 선생님입니다. 이 분이 새벽 4시에 혼자 그렸어요. 제가 이것을 KBS, JTBC에 다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대구칠곡병원에서 처음으로 실행을 했고, 대부분의 정보기관에서도 했었죠. 그래서 이 선생님은 이것을 가지고 논문도 내셨을 정도였습니다.

코로나19 환자들의 CT를 찍어보면 이렇게 증상이 없는 사람도 얼룩덜룩하게 허영게 보이는 폐렴들이 보여서 초기부터 질병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드는 일이었지만 환자들에게는 보험에서 인정해주기 때문에 많은 환자들을 검사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7. 치료의 시도들

치료는 아직까지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이 없습니다. 이는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 즉 임상시험에서 만족스럽게 우월한 효능을 입증한 약이 없다는 뜻입니다. 현재 입원한 저희 환자들도 대부분은 산소 치료만 하다가 악화되는 시점에서만 여러 가지 보조적인 치료만 하고 있습니다. 후보약물로는 HIV 때 쓰는 Kaletra, 일본에서 개발된 Avigan이라는 약 등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Remdesivir와 스테로이드 정도만 부분적인 효능이 입증되었습니다. 초기엔 hydroxychloroquine이 거론되었었는데, 무작위 임상연구에서 증상을 개선하지 못했고 오히려 이상반응만 더 많아서 쓰지 말자고 한 약입니다. 사실 그 시작은 Didier Raoult라고 매우 저명한 프랑스의 감염내과 교수님이신데, 유독 hydroxychloroquine과 Azithromycin 병합요법에 대해서 지나치게 긍정적인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의 연구에서는 모두 우월한 효능을 보고했지만, 그 연구가 무작위 대조연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공정하게 비교된 효능이라고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미 앞선 다른 연구에서 효능이 없다고 퇴출된 약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주류 의학계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미국 FDA도 결국 이 약의 사용허가를 취하하였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미국이나 한국에서 사람들 사이에는 근거 없이 이런 약들이 효능이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서 해당 약을 복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외래에서 처방해달라는 분들이 종종 있으나 권장하고 싶은 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Remdesivir는 사망률을 줄이지는 못해도 증상의 기간을 줄여주는 데에는 그 효능을 입증받았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도 중환자에게 쓰고 있습니다.

8. 예방의 노력

예방에 있어서 대부분의 나라가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은 후진국이 아닙니다. 유럽이나 미국도 사회적인 방역에 실패해서 갑자기 환자가 대량으로 생기면 당해 낼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도 항상 부족한 자원을 가지고 없는 병실을 만들어가면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희 순천향 대학교 구미병원에 파견 갔을 때 억지로 좁은 공간에다가 음압병실을 설치하고 동선분리 작업을 했었습니다. 우리나라 감염내과 의사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보면, 의료진도 부족하고 음압병실도 부족하고 N95 마스크 등 보호구도 부족했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방역당국의 공적 마스크는 매우 엉뚱한 발상이었지만 초기에 잘한 것들 중 하나였습니다. N95 마스크가 모두 소진된 상황에서 우리를 구해준 것이 KF 마스크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동안 지나치게 미세먼지에 대한 공포가 있었기 때문에 KF 마스크가 탄생했고, 역설적으로 코로나 대응에서 KF 마스크가 N95 마스크의 빈자리를 대체했습니다. 예방약으로는 hydroxychloroquine도 효능이 입증되지 않아서 저희도 쓰지 않고 있습니다.

9. 코로나19를 넘어서

재난을 보는 한국 사람들의 시각이 서양 사람들과 어떻게 다른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한국이 일본과 비슷한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한국 국민들은 재난에 대해 주로 분노 감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인과관계적인 원인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주로 권력이 있는 임금, 즉 정부가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사는 대개 힘이 있는 자들의 협력자라고 믿기 때문에 공범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서양 사람들은 재난을 슬픔의 감정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렇기 때문에 재난을 수습하는 입장에 서 있는 정부나 의사들에 대해서는 우호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과거 메르스를 겪으면서 투명하게 병원명과 동선이 공개되지 않아서 더 큰 어려움을 당했던 것으로 기억하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민주주의는 엄격한 감염자 추적과 투명한 동선 공개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개인과 사생활의 권리를 중시하는 서양 사람들에게 민주주의란 개인 정보보호를 우선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노출자의 자가격리가 잘 될 것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본도 동일하겠지만 한국은 유교적인 정서가 있어서, 남한테 비난을 받는 상황이 되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가격리를 어긴 노출자가 되어서 남에게 피해를 줬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극도로 집단적인 지침에 잘 따르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원하는 수준의 동선 공개가 가능해지고, 한국이 방역을 대표하기까지에는 앞선 전자기술도 한몫했을 것입니다. 신용카드 정보도 조회하고 여러 가지 앱까지 만들어서 대응을 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하게 동선 관리가 된 나라였을 것입니다.

정부는 ‘덕분에’라는 배지를 만들어서 의료진들에게 보내왔지만, 저는 달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아직도 우리들의 정서는 그런 숭고한 수준까지 이르지 못해서 속으로는 ‘누구 때문에’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은 집단감염의 원인이 더러 중국인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신천지 교인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이태원 성소수자들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또 광화문 어르신들 때문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사실은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문제의 원인이라면 바이러스가 주범일 뿐입니다. 사람들마다 보는 정치적 시각은 다르더라도 특정 집단을 혐오하거나 타박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야기의 결론을 향해 가겠습니다. 전문가가 보는 위험은 결코 완벽하게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위험이란 일개 정부의 노력이나 정신으로, 국민들의 문화나 습관으로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이 일본보다 더 잘 막아내거나 못하거나 할 수 있는 성격의 위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가 똑같이 안전하지 못한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비유하자면 좀비 드라마에서 나오는 대사처럼 밖에 나가서 물만 마셔도 좀비가 될 수 있고 공기만 마셔도 죽을 수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프랑스 카뮈의 페스트라는 소설에서 의사 리외는 영웅 정신이 아니라 오직 정직함을 가지고 자기가 할 일을 하면서 재난을 극복했다고 합니다. 저는 제가 의사니까 거창하게 나라나 세상을 구하는 대의가 아니라 자기 앞의 환자를 열심히 보면서 이 재난을 이겨내자는 것이 문학작품에 얻을 수 있는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집단면역이 답이 될 수 있는가도 회자됩니다. 한국 인구 기준으로 66% 인구가 감염되고 그중 소수가 사망을 한다고 해도 약 60만 명이 사망합니다. 게다가 그렇게 면역이 생겨도 항구적인 면역이 아닐 우려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수년에 걸쳐서 집단면역이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누구도 이것을 정책으로 추구하기엔 너무나 희생이 크기 때문에 윤리적이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과 달리 스웨덴뿐 아니라 어떤 나라든 집단면역을 정책으로 삼은 나라는 없습니다. 문화적으로 마스크나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받아들이지 않는 스웨덴 사람들이 엄격한 봉쇄를 강행한 영국 사람들을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집단면역 실험이라도 하는 것처럼 보이고, 가혹해 보였을 뿐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차이 또한 실제로 서로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보

다는 문화적 차이 때문에 다르게 보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최근엔 교회가 감염 전파의 주요 요인이 되면서 오죽하면 정부가 지침까지 내어놨습니다. 종교의 문제보다는 한국 종교인들이 밀집 공간에서 모임을 하는 특성 등이 문제가 된 것이라고 봅니다.

코로나19 상황의 어려움 속에서도 한국은 어떻게 상대적으로 선방한 것일까요? 한국에 전문가가 많아서? 참고로 감염내과 의사가 200명밖에 없습니다. 의료 자원이 넉넉하게 많은 것도 아니고 또 의사의 자율성이 있는 편도 아니죠. 우리가 버틴 것은 ‘고무줄 의료’ 즉, 한국 의사들이 1당 100으로 일을 해내는 습관이 있어서 어려움에 처하면 마치 공명심에 의해서 의병이 나라를 구하듯 10배로 일을 해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문제는 전문가인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완벽하게 안전하게 살려면 이른바 ‘뉴노멀 세상’ 즉, 매우 어려운 삶을 의미하지만 저도 사실은 비대면 뉴노멀 세상이 오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는 오래 못 삽니다. 우리가 모르는 진실은 이러한 역병의 유행이 수 세기 동안 여러 번 반복되어왔고 극복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번이 처음은 아닐 것입니다. 몇 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인류는 반드시 극복하고 어느 시점에서인가는 종식을 맞이하고 과거와 같은 삶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감염내과 의사가 보는 완벽한 기준보다는 일반인들이 보는 관점에서, 받아들여질 만한 수준으로 온 국민들이 위험을 인지하고 위험을 최소화하는 전략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은지 저는 생각합니다.

조관자

감사합니다. 코로나 방역문제를 의료 전문가 시점에서
뿐만 아니라 문화적 역사적 근원에서부터 아주 흥미롭게
분석해주셨습니다.

지금부터 1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일관계와 일본정치를 전망하는 시간입
니다. 첫 발표는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남기정 교수님께
서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동북아 질서
변혁과 한일협력의 가능성은 과연 어떻게 전망할 수 있겠
는지요? 남기정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관정일본연구 제2회 학술회의

코로나19 COVID-19와 일본

발표 1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동북아 질서 변혁과 한일 협력 가능성

남기정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교수



안녕하세요. 남기정입니다. 저는 오늘 코로나19가 바뀌 놓은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코로나19 사태에서 한일관계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기조강연이 코로나19를 대하는 태도나 정책들의 한일 간 비교가 중심이었다면 저는 코로나19 속에서의 한일‘관계’에 중점을 둘 것 같습니다. 제목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동북아 질서 변혁과 한일협력 가능성”으로 잡아보았습니다. 코로나19가 동아시아 질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서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전망하면서 그 안에서 한일관계가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협력이 가능한지 가능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코로나19가 바뀌 놓은 세계정치 혹은 지구정치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한국과 일본이 마주하고 있는 미·중 간의 대립구도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그 속에서 동북아시아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있는가를 살펴보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일본과 한국은 각각 무엇을 생각하는가를 확인하고 끝으로 한일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북한이라고 하는 동북아시아에서 거의 “0”에 가까운 상대를 “1”이라는 의미 있는 숫자로 만들어가는 데에서 한국과 일본이 노력을 했을 때 한·일의 직접적인 협력은 아닐지라도 북한을 사이에 둔 간접적인 협력 속에서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결론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코로나 팬데믹이 드러낸 세 가지의 세계정치 경향이 있습니다. 지구화의 정체(Deglobalization), 국가의 귀환(Nation-first Politics), 국경의 강화(Tighter Borders)로 보통 정의를 합니다. Kissinger나 Stiglitz 등이 얘기하는

것이 이른바 자유롭게 열린 국제질서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계속 가능할 것인가 이런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주의자들은 “변치 않는 본질이 드러났을 뿐이다, 지구화라는 것이 예외적인 현상이었다”라는 의견이고요. 자유주의자들은 “지금 잠시 예외적인 상황을 마주한 것이다, 오히려 언젠가는 자유주의적인 국제질서가 재생될 것이다”라고 주장합니다. Ikenberry가 “자유주의적인 국제질서 또는 민주주의 재생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고 말하는 것을 미루어 볼 때 당분간 지구화는 계속 정체되어 있는 상태로 가지 않을까라고 예상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구화의 정체, 국가의 귀환, 국경의 강화라고 하는 세 가지가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경향입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뜨거운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국가’라고 하는 것이고, 코로나19가 국가를 중심으로 만들어져 왔던 근현대 국제질서를 재구축하고 있다는 점을 많은 연구자들이 분석하고 전망하고 또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국가가 귀환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국제사회에서 해왔던 외교라고 하는 것이 실종되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양자뿐만 아니라 다자주의적인 무대에서도 외교가 실종되고 있습니다. 엇그제 양제츠 중국공산당 정치국원이 부산을 방문했는데 매우 돌출적으로 보였던 것, 그것이 외교가 실종된 우리 현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한 경향은 세 가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구미의 실패, 중국의 실추, 국제기구의 실종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국제정치학자들은 G-0의 시대가 왔다고도 합니다. 유럽과 미국은 실패국가로 전락했습니다. 국가 리더십과 정책능력이 부족했고, 국가 시스템이 취약해졌으며, 시민사회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유럽연합 정부와 미 연방정부도 무기력해지고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인류가 고안해낸 가장 좋은 시스템들이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한계도 명

확해졌습니다. 키쇼어 마부바니는 “지구화는 지속될 것이다, 다만 미국의 지구화가 아니라 중국의 지구화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리더십은 현저히 그 위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전방위 외교전에 대한 반발이 오히려 커져가고 있습니다. EU나 NATO가 중국을 돌아보지 않고 중국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현실이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제기구의 존재도 미미합니다. 세계보건기구와 UN은 우왕좌왕하는 모습으로 국제기구의 지도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습니다. 미국은 국제기구를 무력화하려고 했고 중국은 국제기구를 사유화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제기구가 영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런 가운데, 포스트 코로나의 세계는 과연 어떠한 세계인가라는 물음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중 세력전이라고 하는 것의 속도와 모양 등에 관한 논의가 있었습지만 코로나19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미·중 세력전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현실인가 실체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격화되는 것처럼 보이는 미·중 경쟁은 사실 경제적 혹은 군사적 대립보다는 심리적 생리적 대립일 뿐이며 현재 벌어지고 있는 실체로서의 대립이나 물리력을 동반한 전쟁이 아니라 말싸움으로서의 전쟁, 즉, ‘내러티브 전쟁(The War of Narrative)’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보입니다. 미·중 간의 대립이 이념의 대립이어서 신냉전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분석도 보입니다만 ‘뺑’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이데올로기가 과연 미·중 대립 간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데올로기 대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인도-태평양 구상과 일대일로 대결이라는 것도, 세계 모든 국가들에서 따르고 싶은 모델이 되지 못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세계를 양분화 할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큰 의구심이 듭니다. 또한, 미국의 내부도 중국의 내부도

그렇게 단단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내부도, 사실 트럼프의 강경 일변도 중국 정책이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습입니다만,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고 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보여지고요. 중국의 시진핑 권력구도도 동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세계질서를 주도하거나 지배하는 힘은 약화되고 있는데 중국이 이를 대체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중 세력전이라고 하는 것은 신화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코로나19 시대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 시대의 동북아시아는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동북아시아에도 세계적인 현상으로서의 ‘코로나 군축’ 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로서의 실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염자의 발생 그 자체보다도 재정난의 문제로 세계는 군축경향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코로나19 대책 그리고 간접적인 경제 지원이라고 하는 것으로 투입되는 돈 즉 직간접적인 코로나19 대응에 들어가는 재정이 2020년 올해 미국의 군사비 같은 경우에는 3년 반 분, 일본의 방위비의 경우에는 7년 분이라고 하는 비용이 투입되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올해 코로나19 대책이나 경제지원에 썼던 비용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미국은 3년 반분의 군사비를 투입할 수 없고 일본의 경우 7년 분의 군사비를 투입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실질적으로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중국의 일대일로를 뒷받침하는 군사전략 등이 환영(幻影)에 불과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미국의 군사운영 체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3월에 시어도어 루스벨트 함(艦)이 동아시아로 오던 도중 코로나19 때문에 광에 묶어버렸습니다. 그 대신 들어와야 할 칼빈슨함과 레이건함이 역시 코로나19 때문에 미국의 서해안에 묶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중국의 인민해방군 안에도 공군, 육군, 해군 할 것 없이 확진자가 발생을 했고 일대일로를 군사적으로 지원해야 할 인민해방군은 전부 인근 국

가의 건강지킴이로 나가 있습니다. 대규모 군사작전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지금 들려오는 여러 가지 충돌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정도로 방어적인 것이지 자신만만한 그런 공세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 먼저 움직이지마’라는 경고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제3의 질서 구상이 나옵니다. 일본에서도 한국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나오고 있는 제3의 질서 구상 중에 주목할 것은 호소야 유이치 또는 후나바시 요이치와 같은 사람들의 생각들입니다. 팩스 아메리카나 팩스 시니카가 아니고 미·중 세력전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의 머리속에는 일본과 EU의 조합이라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국제질서, 자유주의 국제질서이기에 ‘그것을 지켜 나갈 수 있는 힘이 남아있는 것은 일본과 EU다’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과연 EU가 그러한 힘이 남아있는가’ 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주류는 미·일동맹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게이단련(經團連)에서 나오는 여러가지 논의들이나 군사적인 사고방식을 하는 주로 자위대 출신의 연구자들이 주로 이러한 논의들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일본의 중국 전문가들은 신냉전에 대비하면서, 다시 말해, 미·일동맹에 중심을 두면서도 미·중 사이의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현실주의적인 논의 밖에서도 새로운 논의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예컨대 미들파워 어게인과 동아시아공동체 어게인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5·6년 동안 거의 들리지 않던 목소리가 조금씩 들려 나오기 시작한 것이 변화라면 변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북아시아에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최초로 제국도 패권도 없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이것도 최초로 중견 국가들의 집단지도체제(G20)의 가능성도 열리고 있습니다. 일본의 국가 전략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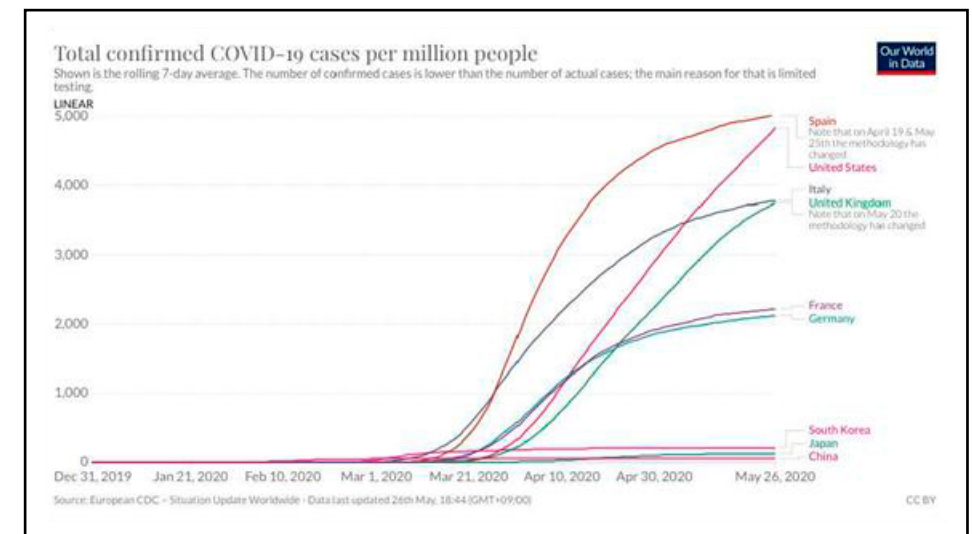
라고 하는 것은 넓은 스펙트럼에서 이러한 현실에 대응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도 신 사고(思考), 신 외교의 가능성을 가늠하고 있습니다. 중견국 외교의 가능성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2~3년 동안 한국에서 교량국가 그리고 중견국 외교라는 말이 크게 들려왔습니다. 물론 10년 정도 된 논의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의구심들이 존재해왔습니다. 그러나 K-방역에 대한 인정과 자부심 속에서 국민들 사이에서 중견국 멘털리티가 공유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 중견국 외교가 실제적인 가능성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런 자신감은 정부의 생각만이 아니고 시민사회 그리고 민간기업, 지방이 총체적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한국에서 보여주는 최근의 모습입니다.

국제정치 이론 중에서 역사 사회학적 국제정치 이론에 주목해보고 싶습니다. 전쟁이 만든 정치적 체제로서의 민족국가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Tilly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본집중적 체제와 강압집중적 체제가 있어 왔는데 자본집중적인 도시국가와 강압집중적인 제국, 그리고 이 둘을 혼합한 민족국가 중에서 장기전쟁을 견디어 이겨낸 것은 민족국가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장기의 대규모 전쟁 속에서 민족국가는 대규모로 군대를 동원할 수 있었고 농업계층과 상부 계층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어 놓고 있었습니다. 그 후 민족국가가 생존해 나와서 근대 국제질서를 민족국가 중심으로 만들어 갈 수 있었던 기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한국은 공공성과 시민성의 조합으로 대단히 균형 잡힌 체제를 만들어 냈으로써 장기 팬데믹에 어쩌면 장기 생존이 가능한 적정 규모와 내용을 구비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한국도

이른바 강대국의 권력 정치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신(新)외교, 중견국 외교의 가능성을 가늠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포와 버터’라는 논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속에서 한국과 일본의 위치를 찾아보고 싶습니다. 자료집에 표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자료집의 그래프와 표를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림 1] 100만명 당 코로나19 확진자. 2020.05.26. 현재

<표 1> 대포와 버터와 코로나19. 2020.08.18. 현재

	확진자 ⁵³⁾	백명당 확진자	사망자	백명당 사망자	핵탄두 작전 배치	핵탄두 보유 총수	병력 ⁵⁴⁾	군사비 ⁵⁵⁾	GDP 대비 군사비 ⁵⁶⁾	천명당 병상 수 ⁵⁷⁾	의료재지출 ⁵⁸⁾	H A Q 인덱스 ⁵⁹⁾	1인당 수진 회수	GDP 대비 의료비 ⁶⁰⁾
미국	5613183	16958	173772	525	1750	6185	2141900	6488	3.4	2.8	12.0	81	4.0	16.9
러시아	932493	6389	15872	109	1582	6500	3586128	614	3.9	8.1	—	72	—	—
프랑스	219029	3355	30429	466	280	300	388635	638	1.9	6.0	13.2	88	6.1	11.2
영국	319197	4699	41369	609	120	215	233000	500	1.7	2.5	11.9	85	—	9.8
중국	84871	59	4634	3	0	290	2693000	2500	1.9	4.3	—	74	—	—
인도	2719499	1968	52060	38	0	130	3462500	665	2.4	0.5	—	45	—	—
이탈리아	254235	4206	35400	586	0	0	357000	278	1.4	3.2	17.5	89	—	8.8
독일	226686	2704	9296	111	0	0	208641	495	1.3	8.0	14.1	86	9.9	11.2
캐나다	122872	3252	9032	239	0	0	94000	216	1.3	2.5	16.7	88	6.8	10.7
호주	23773	931	438	17	0	0	79700	267	1.9	3.8	14.7	90	7.7	9.3
일본	55667	440	1099	9	0	0	303157	466	0.9	13.1	18.6	89	12.6	10.9
한국	15761	307	306	6	0	0	5827150	431	2.7	12.3	20.9	86	16.6	8.1

코로나19피해와 핵탄두, 군사비, 병상 수, 의료비 등을 비교해봤습니다. 백명당 사망자, 핵탄두 작전 배치, 핵탄두 보유 총수 등에서 한국과 일본이 비슷한 모습을 보입니다. 즉 미국과 중국이 대포를 키우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에 비해서 대포를 키우지 않았던 한국과 일본이 버터의 측면에서, 즉 코로나19 대응의 성적이 좋다는 것을 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컨대 HAQ(Health Care Access & Quality Index)라든지 보건의료지출에서 차지하는 의약품 및 기타 비내구성 의료재 지출이라든지, 천 명당 병상 수라든지, 1인당 수진 횟수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한국과 일본이 좋은 성적을 보였고, 그것이 한국과 일본의 성공을 낳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1파에서 100만 명 당 코로나19 확진자 그래프를 봐도 한국과 일본이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과 일본이 중심이 되고 중국과 함께, 즉 객관적인 수치로 미

루어 볼 때 양호한 수치를 보이는 한·중·일의 새로운 협력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한일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생활정치와 시간정치라는 부분에 집중을 해보자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그동안에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것, 우리 편과 네 편이라고 하는 기준에서 세계를 봐 왔습니다. 정체 정치(Identity Politics)라는 것이 세계정치를 지배하는 것처럼 느껴져 왔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19는 정체성(Identity)을 가리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정학=공간정치’로부터 ‘시정학=시간정치’로의 변화입니다. 이것이 제가 보기에 두드러진 변화일 것 같습니다. 커다란 규모로써 안보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규모에 맞는 체제를 바른 속도로 갖춤으로써 어떠한 상황에 빨리 대처하고 위기를 늦추는 전략, 즉 시간을 재원으로 활용하는 정치를 하는 것이 앞으로의 정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규모의 정치보다 체제의 정치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일관계는 어떠한 것인가라는 점입니다. 종래 한일관계 파탄의 시나리오가 있었습니다. “한일관계 악화가 국내적 지지기반의 조직화에는 오히려 도움이 되며, 국제정치적으로는 지정학적 이익을 한일이 공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전의 계기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 상태가 장기화된다면 한일관계는 파탄에 이를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생활정치와 내셔널리즘은 불화하거나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셔널리즘을 찾는 그러한 노력이 오히려 표를 잃게 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얼마나 건강하게 잘 살게 해주느냐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뜻이고요. 또 한 가지는 시간정치와 권력정치의 충돌 가능성도 보입니다. 권력정치로 나아가지 않는 시간정치에 적합한 체제를 갖추는 것, 이것이 한일이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시간정치를 공유할 수 있는 한국과 일본의 협력 가능성이 또는 협력의 국

면이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일관계의 대전환의 시나리오를 코로나 19가 준비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때마침 한국이나 일본이나 양 정부는 정권으로서의 레거시 부족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무언가 하나를 만들어 내야 하는데 북한이라고 하는 동북아시아에서 거의 “0”에 가까운 상대를 “1”이라는 의미 있는 숫자로 만들어가는 데에서 한국과 일본이 노력을 했을 때 한·일의 직접적인 협력은 아닐지라도 북한을 사이에 둔 간접적인 협력 속에서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결론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관자

남기정 교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미·중의 패권이 약화되고 서로의 분쟁이 심화되는 국제 질서 속에서 한일양국이 실질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이론적 실천적 가능성을 모색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박정진 교수님을 모시고 코로나 위기 속의 일본정치 국가전략의 연속 그리고 재편의 가능성에 대해서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관정일본연구 제2회 학술회의

코로나19 COVID-19와 일본

발표 2

코로나 위기 속의 일본 정치: 국가전략의 연속, 그리고 재편 가능성

박정진

쓰다주쿠대 교수



안녕하세요. 박정진입니다. 의미 있는 자리에 불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 일본에서는 아베 신조 수상이 역대 최장기 재임기록을 경신했다는 뉴스가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일본의 코로나 위기는 지속되고 있지만, 아베 수상의 임기는 내년 9월이면 끝나게 됩니다. 뒤이은 10월은 중의원 임기도 끝나는 시점입니다. 일본은 정치계절에 접어들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당분간 코로나 위기 속의 포스트 아베를 둘러싼 정치적 이슈가 주요 뉴스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일본의 코로나를 둘러싼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프를 보게 되면 붉은색 선이 감염자 수를 나타냅니다. 한국도 최근 감염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이입니다만, 일본은 이보다 조금 앞선 시점에서 감염자 수가 급증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위기가 재래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일본의 분위기는 일상생활에서 큰 변화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나 정부에서도 특별한 메시지를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래프 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푸른색 그래프가 사망자 수이고 보라색 그래프가 중증환자 수인데, 긴급사태 발령의 시점보다 오히려 숫자가 더 줄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논쟁적입니다. 기본적으로 감염자 수를 판명하는 모수(母數)가 되는 것이 PCR 검

어떠한 한일 관계를 지향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이 부분을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나오는 목소리들은 주로 대립과 화해입니다. 한일 간의 대립은 일시적으로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장기적인 전략 구도 하에서만 말이죠. 그 구도 하에 한일 관계에 대한 장기 전망 없이, 규범적으로 화해를 이야기하는 논의 방식은 앞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 횡수인데, 긴급사태를 발령했던 시점과 검사의 숫자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감염자와 관련한 현재의 수치가 변화의 추세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현재가 과연 위기인지 아닌지,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한편, 아베 내각도 코로나 감염자가 급증하는 가운데서도 위기 상황으로서 문제를 특정하지 않고 있고, 전문가들의 견해도 일관되게 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일본의 이러한 코로나 현황과 대응 방침을 한마디로 ‘애매함’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첫째로 이 ‘애매함’을 초래한 지금까지의 일본의 정치 과정, 특히 코로나 위기에 대한 정책 결정 과정입니다. 둘째로 이 ‘애매함’이 지속되면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일본의 총선거 국면입니다. 저는 이 ‘애매함’ 속에서 우리가 놓칠 수 있는 쟁점을 말씀드리고 그것이 향후 한일 관계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일본의 코로나에 대한 대응은 지난 4월 7일의 긴급사태 선언에서부터 본격화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일본의 상황을 뉴스로 전해 들으면서 ‘신형코로나감염 대책본부’, ‘클러스터 대책반’, 그리고 ‘자숙’ 등의 표현에 조금은 익숙해지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일본의 코로나 대책은 한국의 그것과도 많이 다르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특히 일본의 ‘클러스터 대책반’과 ‘자숙’의 요청은 크게 두 가지 특수한 대응 방식을 초래했습니다. 첫째, 시종일관 매우 소극적으로 PCR 검사를 시행해왔으며, 두 번째로 감염예방 혹은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필연적인 개인의 자유에 대한 법률적 제약을 거의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이 일본 코로나 대응의 ‘애매함’을 불러일으켰다고도 할 수 있

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일부에서는 아베 수상관저 또는 내각의 특정한 의도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저는 검증하기 어려운 주관적 의도보다는 지금까지 확인된 과정에 주목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일본의 코로나 대응 과정의 시작은 2월 14일에 있었던 대책본부의 발족입니다. 일본 정부가 중국이나 다른 국가에 대해서 출입국 규제를 전혀 시행하지 않았던 시점입니다. 대책본부가 위기의식을 가지고 발족했다고 보기 어려운 지점입니다. 뒤이어 전문가 회의라는 조직이 대책본부 산하에 만들어지면서 한국과 중국을 비롯해서 다른 나라에 대해서 출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월 13일에 ‘신형 인플루엔자 대책특별조치법’을 통과시킵니다. 그런데 이즈음부터 긴급사태 발령에 이르기까지 의외의 현상이 발견됩니다. 일본 코로나 대책의 사령부로서 내지는 지도부로서 대책본부의 전문가 회의가 아닌, 후생성의 임시조직인 클러스터 대책반이 전면에 부상한 것입니다.

클러스터 대책반의 대표격인 니시우라 히로시 홋카이도대 교수는 “사람과의 접촉을 8할로 줄이면 코로나 대책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계산법, 이른바 ‘니시우라 시산(試算)’을 언급한 바 있는데, 이 말은 아베 수상이 긴급사태를 선언하면서 일종의 슬로건처럼 표현되게 됩니다. 문제는 이 계산법 자체가 특별하기도 하지만, 이것이 전문가 회의에서 반드시 필요한 검증이 누락된 채 ‘시산’으로만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역병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클러스터 대책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과학적으로 의미가 있는지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정책결정 과정에서 전문가 회의를 통한 검증 과정이 분명하게 보이지 않았다는 측면, 그리고 이 방식이 결과적으로 PCR 검사의 소극적 대응논리로서 작동했다는 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본의 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한 정책결정 과정을 정리해서 보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클러스터 대책반은 애초부터 대책본부 외부에 있었습니다. 한편 대책본부의 초기 대응은 전문가 회의가 아니라 대책본부의 사무국을 맡고 있던 의계기관(医系技官), 즉 의료행정관료들이 정책결정의 기본적인 세팅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책의 기본방향은 “의료 체계의 붕괴를 최대한 저지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은 메르스나 사스와 같은 대규모 역병의 확산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료체계가 위기에 대응할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일차적인 이유였습니다. 이에 더해 일본에서는 이미 특정 감염증법이 있었고, 코로나를 이 법에 적용하도록 하는 조치가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문제는 특정 감염증법이 무증상 또는 중증 환자가 아니더라도 무조건 병원에 입원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즉 한국처럼 별도의 격리시설을 만드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감염자들은 병원으로 쇄도할 수밖에 없고, 이것이 의료체계의 붕괴를 현실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였던 것입니다. 이 법은 과거의 한센병 환자들에 대한 강제격리 치료에 대한 인권침해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개정이 쉽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의료체계 붕괴를 저지하기 위해 PCR 검사를 가능한 억제한다는 초기 대응 방침은 이러한 배경 속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주로 보건소를 통해 검사 절차를 복잡하게 하거나 의료보험 적용을 제한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정책결정 과정은 평상시 일본 정치에서 상당히 익숙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로 성, 청 내에서 사무국 관료들이 형식적으로 전문가 그룹들을 소집하고 실질적으로는 자신들이 정책 입안을 주도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이루어지는 정책은 주로 전문성보다는 현장성에 기반합니다. 자문을 하는

전문가 그룹은 행정 관료의 정책 기반을 보증(お墨付き)하는 시스템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평시의 관료 주도 정책결정 과정이 위기 국면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다는 점입니다.

현재 아베 내각에 대해 관저주도의 정치 아래 강력한 정치력을 발휘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조금의 오해가 있습니다. 일본의 관저주도 정책이라는 것이 모든 아젠다에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지율과 관련된 정책 분야에서만 적용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가토 후생노동성은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중요한 아젠다의 특별담당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담당 부분 이외의 정책 부문은 기존 관료 시스템에 맡겨 놓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평시라면 방역과 관련된 정책도 지지율과 직결되는 의제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에 대해 일본이 취해왔던 대응은 위기관리 체제가 아니라 평시체제를 통한 대응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비상사태를 해제한 후에 여러 가지 새로운 조치들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AI 검증 시뮬레이션 검토 회의를 신설해 일본이 자랑하고 있는 기술력을 중심으로 코로나 사태를 대응하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비상사태 이후에도 대책회의 내부의 정책결정 과정에는 본질적인 변화가 없었습니다. 의미 있는 변화라면 전문가 회의를 없애고 분과회라는 조직을 새롭게 구성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존 전문가 그룹에 더해 경제 전문가와 자치단체장까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긴급사태 이후에는 “포괄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는 의미이고, 특히 경제를 중심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도가 보입니다. 그 첫 번째 시도가 <GOTO Travel> 정책이었는데, 관광 자체가 경제적 효과가 있다

라기보다는 분위기 조성을 위함이었습니니다. 하지만 이 분위기 조성이 사실상 실패를 하게 됩니다. 마침 도쿄도를 중심으로 급격하게 감염자가 확대가 되면서 결국은 아베 수상과 관저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 대책본부에 대한 불신이 극도에 달하게 되었고요.

그 이후로 현장에서는 다양한 불만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이는 장면은 도쿄도 의사협회의 성명입니다. 전면적인 PCR 검사의 실시와 경제 대책으로의 경사에 대한 문제 제기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클러스터 대책의 상징인 니시우라 교수와 노벨상 수상자인 야마나카 노부오 교수의 대담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대담은 유튜브를 통해 공개되었습니다만, 여기서 코로나로 인해 조만간 40만 명이 추가적으로 사망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보다 긴장감을 가지고 코로나 대책에 집중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만, 도쿄도 의사협회의 성명과는 맥락을 좀 달리합니다. 니시우라 교수와 야마나카 교수의 대담은 결국 클러스터 대책의 정당성을 확인할 수 있는 논리였기 때문에, 사실상 PCR 검사 확대를 억제하는 논리를 재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염자가 폭증하고 있었기 때문에 PCR 검사를 부정하는 논리는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들지만, 검사를 자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PCR 검사 확대를 둘러싼 논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습니다. ‘애매함’의 대표적인 단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코로나 위기에 대한 일본의 현황, 대응 또는 이를 둘러싼 논쟁에서 일관되게 보이는 애매함의 유래는 위기 국면에서도 비상체제로 대응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 저의 관찰입니다. 평시체제를 극복하고 비상체제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평소와는 다른 조직의 재편과 법률적인 개정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무리를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아베 내각은 이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 외에 다른 결론을 찾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왜 아베 내각이 비상체제로의 이행을 하지 않았나라는 부분인데, 이 물음은 수상 권력의 권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아베 수상의 관저 중심 정치는 기본적으로 인사권의 집중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성, 청의 재편권이 수상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 주권에 대한 침해를 불러일으키는 법률의 개정도 강행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관련 법률의 개정과 관련해서는 아베 수상의 특별한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아베 수상은 이 문제를 개별 법률의 개정보다는 헌법 내 비상조치와 관련된 조항을 추가하는 방식, 즉 개헌의 문제로 가져가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잘 진행되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이는 코로나 위기 이전부터 아베 수상의 개헌 추진력이 크게 약화되어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사실 아베 일강 체제는 이미 붕괴 조짐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는 아베 내각의 콘크리트 지지층이던 30대 이하의 지지도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코로나 대책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기보다 비상 국면이라는 메시지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였고 또 거기에 걸맞은 분명한 조치가 실행되지 않았다는 면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프랑스와 영국에 비해서 일본은 절대로 감염자 수가 많거나 위험하다고는 볼 수 없는데, 지지율은 그 반대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프랑스와 영국은 코로나 대책의 성패와는 별개로 국민들에게 위기의식과 이에 필요한 대응을 호소 또는 강제한 국가들입니다. 비상체제였던 것이죠. 반면, 일본의 경우 코로나 이전부터 균열을 보이던 아베 일강 체제가, 코로나 국면에서 비상체제로의 이행이 지체되면서 결정적으로 붕괴되지 않았나라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아베 수상을 필두로 한 정계 개편은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임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중의원 해산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시뮬레이션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예상되는 것은 올해 안의 중의원 해산과 총선거의 실시입니다. 아베 수상 덕분에 자민당이 승리하지는 않을 것이고, 아베 수상에 의한 개헌 드라이브는 약화될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야당이 승리할 가능성 또한 매우 낮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총선에서 자민당 승리의 요인 중 하나였던 아베 내각의 대규모 재정 지출이 코로나 위기에서 크게 더 유효할 것이며, 아베 수상이 구상했던 국가 전략의 큰 그림들도 총선 국면 속에서 일관되게 추진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주목할 만한 담화가 있었는데요. 7월 말에 고노 방위상이 이지스 어쇼어(Aegis Ashore), 즉 미사일 배치와 관련된 기존의 정책, 특히 해상뿐 아니라 해상까지 확대하는 대규모 플랜이었던 정책을 철회하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아까 남기정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코로나가 불러일으킨 재정 문제가 여기에도 관련이 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발표가 있는 직후에 아베 수상이 국가안전보장전략에 적극적인 수정을 지시했고, 뒤이어 내각과 자민당 내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초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자민당 내에서 제출됩니다. 그 내용의 골자는 일본 방위에 있어서 적 기지 공격 능력의 보유, 즉 전수방위 원칙의 후퇴를 의미합니다. 또 가장 최근에는 아베 수상이 적어도 종전 기념일인 8월 15일에는 쓰지 않던 용어를 입에 담았습니다. 적극적 평화주의. 아베 수상이 만들었던 국가안전보장전략의 키워드입니다.

일본의 코로나 위기는 예전부터 있어왔던 아베 일강 체제를 결정적으로 붕괴시켰고, 그 배경은 비상체제로의 전환을 발목 잡는 종래의 관저주도 내지는 관

료주의적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만큼 아베 수상의 개헌 드라이브는 무디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개헌에 준하는 아베 수상이 추진하던 국가 전략의 큰 그림들은 그의 임기 동안 안보 법제나 집단적 자위권 등으로 현실화되어 왔고, 코로나 위기 속에서 전수방위의 원칙도 후퇴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까지 염두에 둔 일본의 지정학적 자기 정의와 새로운 지역전략 등등이 크게 무리 없이 갱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큰 기조 안에서 그동안 한일 관계의 위상이 재배치되어왔고,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베 내각은 끝나겠지만 코로나 이후의 아베가 추진했던 일본의 국가 전략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고, 그 연장에서 한일 관계의 회복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과연 한국은 향후 어떠한 전략적 그림 속에서 일본을 대할 것인가. 다시 말해 어떠한 한일 관계를 지향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이 부분을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 한국에서 나오는 목소리들은 주로 대립과 화해입니다. 한일 간의 대립은 일시적으로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장기적인 전략 구도 하에서만 말이죠. 그 구도 하에 한일 관계에 대한 장기 전망 없이, 규범적으로 화해를 이야기하는 논의 방식은 앞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정진 교수님 감사합니다. 일본의 소극적 방역정책이 아베 일강 체제의 붕괴과정을 암시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일본의 애매한 평화로움이 그 이면에서 적극적인 평화를 내세우고 또 한일관계의 악화 속에서 군사적 긴장감을 촉발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제1부의 전체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국가의 역할이 중시되는 이 시국에서 더욱더 한일시민사회가 각성하고 서로 협력해가는 과정이 앞으로의 동북아 질서를 재편하는데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2부 사회

이 은 경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

안녕하십니까, 제2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먼저 사회를 맡은 서울대학교 일본 연구소의 이은경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모두 함께 이렇게 잘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 속에서 일본에 관해서 연구하고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법을 함께 논의하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1부에서는 들으신 것처럼 주로 정책과 담론, 국제관계 등의 공중전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제2부에서는 지상으로 내려와서 일본의 경제와 사회에 대해서 조금 더 밀착된 얘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두 선생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로는 한국외국어대 융합일본지역학부에 계시는 이창민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발표 제목은 코로나 19의 충격과 일본경제가 되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도쿄 대학에서 일본의 경제사 그리고 경제경영 등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요. 저서로서 ‘전전기 동아시아의 정보화 경제 발전(戦前期東アジアの情報化と経済発展)’이라는 책을 도쿄대학 출판부에서 출판하셨고 또 ‘아베 시대 일본의 국가전략’이라는 박철휘 교수님의 편·저서에 함께 공저로 참여하시는 등 활발한 연구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시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관정일본연구 제2회 학술회의

코로나19 COVID-19와 일본

발표 3

코로나19의 충격과 일본경제

이 창 민

한국외국어대 교수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코로나에 걸려서 죽는 것보다 굶어 죽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가 격리 조치를 하라고 해도 그걸 어기고 일하러 간다는 거죠. 2차, 3차 유행이 올 경우에 경제 측면의 인센티브가 크게 작용해서 결국에는 방역 대책이 전혀 먹혀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이 연구의 핵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외대 이창민입니다. 저는 코로나19의 충격과 일본경제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처음 코로나19가 유행했을 때는 분명 감염병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상 두 번째 유행이 시작되었는데요. 두 번째 유행, 세 번째 유행, 이렇게 재유행이 됐을 때는 감염병 위기라기보다 경제 위기의 측면이 더 강하고, 그래서 현재는 감염병 위기와 경제위기가 함께 온 것이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해서 일본경제의 여러 가지 측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전후 일본경제가 몇 차례 경제의 충격을 겪어 왔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1973년의 석유 위기, 그리고 2008년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고요. 또 2011년에는 동일본 대지진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전후에 큰 경제위기를 여러 차례 겪어 왔는데 2020년 코로나19는 처음에는 감염병 위기였지만 지금은 명백하게 경제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2020년이 다 끝나지 않았습지만 예측에 의하면 GDP의 마이너스 성장률은 당연하고요. 그래서 성장률이 마이너스 6%부터 마이너스 10%까지 낙관적인 예측에서 비관적인 예측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2차 유행, 3차 유행이 되면 훨씬 더 큰 충격으로, 아마도 전후가

장 큰 경제충격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생산과 소비,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을 많이 보는데요. 이러한 생산과 소비에 미친 충격이라는 점에서 코로나19 위기는 지금까지의 경제적 충격과는 다른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경제학 교과서에서 경제 위기가 오면, 특히 수요 충격의 위기가 오면 이러한 처방을 쓰라 하는 것이 있는데요, 보통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 같은 거죠. 이것을 지금 쓸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정책을 쓸 수 없다는 것이 무슨 말이나면, 트레이드오프(trade-off) 관계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랬습니다만 잠깐 안정화된 사이에 수요 확대 정책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펼쳤죠. 우리도 외식권을 나눠주고 여행 다니라고 얘기하고, 일본도 Go To Campaign으로 여행을 많이 가라고 했는데, 그러자마자 바로 제2의 유행이 시작돼서 하루 사이에 정책이 180도 뒤바뀌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수요 확대 정책을 펼치면 방역 정책에 구멍이 뚫리고, 반대로 방역 정책을 강조하다 보면 수요가 축소되니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경기 활성화 정책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전파 속도입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이 COVID ECONOMICS라는 저널인데 얼마 전에 만들어졌어요. 아까 김태형 교수님의 의학과 관련된 연구에 대한 말씀도 있으셨지만, 의학이나 생명공학, 또 컴퓨터 사이언스 이런 분야는 논문이 굉장히 빨리 나오기 때문에 투고에서 출판까지 기간이 짧고, 특히 이 코로나와 관련된 글은 peer review 심사를 하지 않고 바로 실어주죠. 연구를 공유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렇지만 경제학을 비롯한 사회과학에서는 보통 그런 경우가 잘 없고, 투고해서 게재될 때까지 1년이나 2년, 경우에 따라서는 3~4년씩 걸리기도 하는데, 이 COVID ECONOMICS는 최근에 만들어져서 이를

이나 사흘에 한 번씩 발간됩니다. 그리고 한번 나올 때 논문이 7편이나 8편 실리는데, 2~3일에 한 번씩 발간될 정도로 경제학에서도 새로운 연구유형이 나타나고 있고, 그만큼 지금 연 단위나 월 단위 데이터 가지고서는 안되는, 매일 매일 나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를 해야 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연구나 정부정책의 방향성도 이제는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내일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예측 불가능한,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환경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 충격의 성격을 경제학에서는 일시적인 충격인지 아니면 구조적인 충격인지, temporary shock인지 혹은 permanent shock인지를 구분하는데, 현재 코로나19는 이 두 가지 성질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가 안 좋아서 일시 해고를 했을 때는 일시적 충격이죠. 그 충격이 지나고 나면 재고용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만약 해고한 김에 대면 업무를 줄이고 온라인이나 자동화, 기계화하자고 하면, 이것은 구조적 충격이 되는 거죠. 두 번 다시 고용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V자 회복을 할 것인지, 아니면 L자 침체를 계속 겪을 것인지도 중요합니다. 지금 이 그래프는 IMF가 추정한 것인데요. 아마 중국은 이렇고 전 세계는 이렇고, 지금 이렇게 회복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의 전제는 충격이 한 번 있을 때, 첫 유행으로 다 끝나면 이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IMF의 예상도 빗나간 거죠. 이제 V자 회복을 할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 충격의 성격이 공급 충격인지 수요 충격인지도 중요합니다. 최근에 1918년 스페인 독감 연구에 대해 여기저기서 인용이 많이 되기 시작했어요. 인류 사회에서 비교를 해보니까 지금과 유사했던 상황이 1차 대전 이후의 스페인 독감이었습니다. 스페인 독감 같은 경우는 1차 대전이 끝나고 병사들이 귀향하면서

옳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독감이 유럽에 퍼져 나갔는데, 이 당시 전 세계 인구의 2%인 3천9백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망한 3천9백만 명이 대부분 젊은 층이었어요. 한창 일을 해야 하는 젊은 층이었기 때문에 이런 감염병의 충격은 보통 경제학에서 공급 충격, 즉 생산이 타격을 받는 공급 충격이라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약간 다릅니다. 그때 스페인 독감과 다른 것이 뭐냐 하면 이미 의학 수준이나 관련 분야가 다 발전해서 전 세계 인구의 2%가 사망할 정도까지 사망하지도 않겠지만, 지금 돌아가시는 분들이 대부분 고령층이기 때문에 과연 코로나19가 공급 충격만으로 설명이 가능한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글로벌 밸류체인이라고 해서 전 세계가 공급 사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공급 충격일 수도 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도 코로나19가 공급 충격인지 아니면 수요 충격인지에 대해서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 파란색이 GDP이고 빨간색이 물가인데요, 왼쪽에 있는 것이 이번의 코로나 충격이고 오른쪽은 동일본 대지진 때의 충격입니다. 둘 다 GDP는 감소를 했죠. 근데 물가 수준을 보면 동일본 대지진 같은 경우는 단기이긴 합니다만 물가가 상승하고 있고, 왼쪽의 코로나바이러스 충격은 물가가 하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일본 대지진은 공급이 부족하니까 물가가 상승하는 것이고, 코로나19는 수요가 감소해서 물가가 내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본 대지진처럼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에 보통 공급 충격이라고 보고, 이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처럼 물가가 하락하는 시기에는 수요 충격의 가능성이 더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와타나베의 논문에서 주장하는 바입니다. 반면에 하야시 논문에서는 와타나베와 달리 공급 충격이 더 크다고 합니다.

방금 봤던 그래프는 사실 3월 데이터만 가지고 한 거라서, 지금 해보면 또 어

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공급 충격이 큰가 수요 충격이 큰가라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만약 코로나로 인한 충격이 공급 충격이라고 하면 현재 아베 정권이 펼치고 있는 코로나 대책으로서의 수요 확대 정책이 별로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수요 충격이라면 아베 정권의 코로나 대책이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공급 충격일지 수요 충격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지만, 사실 이 두 가지가 섞여 있다고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생산자 입장에서 보면 지금 영업 제한이나 직장 폐쇄 등으로 일을 못하기 때문에 생산이 줄어드는 공급 충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밖에 나가지 못하고 집에서 집콕 상황을 계속 이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수요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어느 쪽 충격이 더 클지에 따라서 정책의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적 관찰이 아직은 좀 더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정진 교수님 발표에도 있었듯이, 일본이 초기 방역에 실패한 이유는 의사 결정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도 있습니다만, 경제학적인 이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코로나 초기에 코로나19에 대한 정보가 없었을 때, 경제 학계에선 코로나19가 두 가지 외부불경제를 가지고 있다고 봤습니다. 환경오염 같은 경우를 우리가 외부불경제라고 하는데, 그 두 가지 중 한 가지가 이기적인 개인입니다. 개개인은 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타인의 감염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데 적극적이지 않고, 그래서 마스크를 열심히 쓰지 않을 것이고, 또 강제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스크라는 것은 얼마 전에 모 신문 기사에도 나왔습니다만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옮지 않기 위해서라기보다 상대방에게 옮기지 않을 예방 목적이 훨씬 더 큰 거죠. 그래서 이기적인 개인을 가정하면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지 않기 위해서 개개인이 열심히 마스크를 쓰겠느냐는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의료 서비스 공급에 제약이 있을 경우에 이기적인 개인들로 인해 무증상 감염자나 경증 환자들이 다 병원으로 몰려서 병원 혼잡도가 필요 이상으로 증가하면, 중증 환자 치료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이 코로나19 사태가 가져올 가장 큰 사회-경제적 충격은 바로 의료 붕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의료 붕괴를 막는 것이고, 이것이 당시 일본정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PCR 검사 등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사실은 사회 후생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반대로, 초기 방역 실패로 인해 불안감이 증폭되었고 그러다가 일본정부가 방향을 또 바꾸죠. 처음에 과도한 검사를 지양해야 된다고 했다가 중간에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하면서 정부정책의 방향성이 바뀌었고, 갑자기 일본이 3월 10일부터 3월 18일, 3월 20일 이렇게 정부정책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정부정책이 자주 바뀌면서 이것이 일본 경제에 많은 불확실성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경제학에서는 몇 가지 대리 변수로 불확실성의 정도를 측정하는데 그중 한 가지가 주가의 변동 지수 같은 것으로 그 경제의 불확실성 정도를 알아봅니다. 지금 그래프에 나와 있는 것이 불확실성의 정도인데, 일본경제의 불확실성이 가장 높았던 때가 3월 15~16일 정도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때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호가 터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호 사건 때문에 일본 경제의 불확실성이나 불안감이 굉장히 증폭되었고, 정부정책의 혼선과 결합되면서 경제 충격으로 왔던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감염자 숫자와 불확실성의 정도가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빨간 부분이 감염자 숫자입니다. 신규 확진 숫자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규 확진자 숫자의 1차 유행의 정점은 4월에 발생했구요. 이후 2차 유행의

정점이 다시 나타나는데 불확실성을 보면 그보다 빠른 3월에 정점을 기록하고 그다음에는 크게 변화가 없죠. 무슨 말이나면 처음에 코로나19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을 때의 상황과 지금은 좀 다르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 바이러스의 특성이라든지 예방법들에 대한 정보 공유가 진행되었고, 지금은 경제 충격으로서는 불확실성에 대해 크게 염려할 정도는 아닙니다. 다만 정부정책이 바뀐다든지 하면 다시 이 불확실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000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도 지금 적극적인 방역 정책으로 전환하기가 어려운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경제 활성화 정책과 방역 정책이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있기 때문에 쉽사리 방향을 틀 수가 없는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주가도 보시면 한 번 충격이 있었죠. 그래서 첫 번째 유행이 왔을 때 주가가 굉장히 많이 폭락하고요. 그다음에는 오히려 상승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동학개미 운동이 있었을 리는 없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주가가 다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원래 이렇게 경제가 안 좋으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자산이 엔화와 금입니다. 그래서 다들 아시다시피 경기가 안 좋아지고 세계적인 불황이 오면 엔화 가치가 오르고 금값이 뛰죠. 그래서 금값이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어렵다는 뜻인데, 환율은 생각보다 엔고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처음 발병했을 때, 제가 주변에 적극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엔화를 사라, 빨리 사라. 그런데 금을 사라고 했어야 했는데... 그런데 생각보다 지금은 상대적으로 엔고이긴 하지만, 2016년의 엔고일 때와 비교하면 사실 심각한 엔고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럼 왜 그런가? 안전자산으로 엔화의 매력이 떨어진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일본의 통화정책, 그러니까 아베 정부가 소위 말하는 양적완화로 돈을 푸

는 정책이 제대로 작동한 것인지 궁금한데요. 적어도 아베노믹스의 돈을 푸는 통화정책이 제대로 작동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일본은행이 펼친 정책이 뭐냐면 기준금리는 유지하면서 CP와 회사채를 7.4 조엔 증액하겠다는 것인데요. 이 규모가 미국이나 중국, 독일, 프랑스 등 다른 주요 국가들의 통화정책에 비하면 굉장히 소극적인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통화정책 때문에 환율이 안정적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재정정책입니다. 일본 정부가 얼마나 열심히 돈을 풀고 있느냐를 따지면, 사실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를 비롯한 전 세계 정부들이 지금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쓰고 있는데요. 코로나 시대의 재정정책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공중위생 정비가 최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스크나 방호복, PCR 검사체계를 정비하는 데 제일 먼저 공적자금을 투입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경기 부양을 하고 있습니다. 공적 부채 수준, 그러니까 전 세계의 정부들이 얼마나 부채를 지고 있느냐를 보면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지금이 최고 수준입니다. 여기 그래프 맨 끝 파란색을 보시면 지금이 최고 수준이고, 전 세계의 정부가 빚을 최고로 많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측면에서 보면 2차 대전 이후에 인류 사회에 가장 큰 위기가 도래했다고 하는 겁니다. 재정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국가부채를 얼마나 쓰고 있냐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국가부채 규모가 전 세계 GDP의 10%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20% 수준입니다. 두 배가 넘는다고 할 수 있죠. 지금 GDP는 사이즈가 다르니까요. 그래서 재정 측면에서만 보면 인류 사회에는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최대 위기에 봉착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이 얼마나 썼느냐면, 그래프의 빨간색은 긴급 생활 지원 자금 혹은 세금 유예 등의 직접적인 지원을 뜻하고, 파란색은 공공기관의 부채에 용자를 해준다든지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등의 간접 지원을 뜻합니다. 빨간색의 직접적인 지원 규모를 보면 일본이 미국 다음입니다. GDP 대비인데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많고 두 번째는 일본이죠. 파란색의 간접 지원은 1위가 이탈리아고 2위가 독일이고요, 3위가 일본입니다. 직간접 지원을 통틀어서 일본이 가장 적극인데, 정부가 돈을 열심히 푸는 그런 재정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유동성 위기라고 해서 돈을 풀어도 더 이상 금리가 떨어지지 않는 그런 함정에 빠져 있죠. 그래서 사실은 통화정책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것도 결국에는 재정정책밖에 없었다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는 재정정책의 주요 골자를 보면 두 가지 국면과 다섯 가지 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국면이 뭐냐면 긴급 지원 국면과 V자 회복 국면이고, 다섯 가지 축은 각각의 국면 아래 있는 다섯 개의 구체적인 정책인데요. 일본 정부는 얼마 전까지 두 번째 국면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 국면을 보시면 경제 살리기예요. 그래서 Go To 캠페인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를 했는데, 지금 2차 유행이 본격화되면서 다시 긴급 지원 국면으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딱 한 번의 유행으로 끝나면 좋는데 재유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 또 혼선을 빚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5월 25일이 어떤 기점이었죠. 긴급사태 해제를 선언하면서 회복 국면에 들었다고 판단을 해서, 정부가 열심히 여행도 가고 외식도 하라면서 경제 살리기를 시작했는데, 다시 7월부터 2차 확산이 시작되었죠. 아까 설명 드린 것처럼 재정정책과 방역 정책이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재정정책을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면 방역 정책 구멍이 뚫리고, 방역 정책의 수준을 올리면 경기가 살아나지 못하고, 그래서 지

금 일본정부 입장에서는 강력한 방역 대책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다가 경제 활성화에 대한 정부 의지와 반대되는 시그널을 줄 수 있어서 함부로 강력한 방역대책을 세우기에 한계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은 재정정책을 통해 드러난 일본 사회의 문제점, 그러니까 긴급자금을 지원하면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취약계층에 대해서 충분한 급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노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저해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했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일하지 않는 것이 더 낫겠다는 판단을 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디지털화에 뒤쳐진 데서 발생한 문제점입니다. 한국에서 앱을 다운 받아서 긴급 생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보고 일본도 비슷하게 하려고 했는데, 앱을 다운 받아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동사무소에 가서 도장을 찍어야 하는, 긴급자금 지원을 하다가 방역정책에 구멍이 뚫리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죠.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일본 사회에 어떤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기회가 되었고요.

그 외에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재정정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부분도 중요합니다. 일본은 의료 붕괴를 두려워한 나머지 검사 체계의 확립이 늦어졌죠. 그래서 첫 번째로 앞으로는 무조건 보건 의료분야 재정 투입을 최우선으로 하고, 지금 하는 재정 투입은 완전히 코로나19 경제위기에서 탈출할 때까지 충분히 해야 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최근에 나온 연구에 의하면 예비적 동기의 저축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있어요. 무슨 말이나면 지금 정부가 자금을 지원해도 사람들이 그 대부분을 저축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비적으로 혹시 이 사태가 또다시 올지도 모르고, 아니면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모르니까 예비적 저

축의 동기가 늘어났다는 연구결과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리고 길게 재정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정책 시사점이고요.

다음으로 두 번째는 지금 이 사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노동자들이 처음에는 일시 해고됐다가 이제는 완전히 해고되고, 무인 자동 시스템의 도입과 같은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노동자 재배치를 위한 정부 재정의 투입이 필요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산업구조에 나타난 코로나 충격인데요. 원래 경제위기는 제조업에 미치는 충격이 더 큼니다. 일반적으로는 제조업 충격이 큰데 이 코로나19 위기는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에 훨씬 충격이 컸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서비스업 안에서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여행업은 충격이 굉장히 큰데 반대로 택배업은 호황을 누렸습니다. 또 같은 업종 안에서도 기업별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통신서비스만 봐도 다른 통신사들과 달리 소프트뱅크는 오히려 성장하는 기회가 됐어요. 기업별, 산업별로 굉장히 퍼포먼스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최근에 나온 연구입니다만 전 세계 기업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충격에서 얼마나 빨리 벗어날지 연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일본을 포함한 주요 국가 기업들을 전부 다 분석해 봤더니 어떤 기업들이 코로나 위기에서 빨리 극복을 했느냐면, 당연한 이야기지만, 재정 상황이 좋았던 즉 부채가 적은 기업들의 상황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문제냐 하면, 아베노믹스라는 것이 기업들에게 은행에서 돈을 빌려 신규 투자를 열심히 해라, 현금을 쌓아 두지 마라 돈 빌려서 신규투자하는 기업에게 지원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업들이 투자를 하도록 유도했는데 코로나19 위기가 발생하니까 정부 말을 안 들은 기업들은 타격이 적었고, 오히려 정부 말을 잘 들은 기업들은 타격이 컸어요. 이

런 결과로 이어지는 바람에 과연 정부 정책에 보조를 맞추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 바람직한 건지 하는 논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노동시장을 보면 일본의 실업률이 2010~11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2018~19년에는 2.4%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보통 자연실업률을 3% 정도라고 하니까 자연실업률보다 낮은 수준이죠. 그런데 8월에는 아마 3%대 정도까지 오를 것으로 추정되고요. 사실 이것보다 더 문제되는 것은 실업률 통계에 나타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인구가 줄어드는데 아베노믹스가 어떻게 노동 공급을 확대해 왔느냐면, 비노동력 인구인 주부나 고령층을 비정규직 노동자로 취업을 시키면서 노동력 인구를 늘려 왔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아베노믹스가 실시되는 기간 동안 일본의 총 인구나 생산 가능 인구는 줄어들지만 노동 인구는 계속 늘어납니다. 실업통계 밖에 있었던 주부들이나 고령자들을 재취업시켜서 노동인구가 계속 늘어났는데, 지금 코로나19 위기 때문에 그렇게 취업했던 주부나 고령층 노동자들이 다시 직장을 그만두면서 비노동력 인구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통계에 안 잡히기 때문에 실업률로는 나타나지 않죠. 실업률은 약간 늘었지만 실제로는 실업률이 과소평가되어 있는 거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비노동인구로 빠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이것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것이 왜 문제냐면 결국 일본이 소비가 줄어든 이유가 소득이 늘지 않아서 그런 건데, 지금 이렇게 노동인구가 줄어들면 소득 감소로 이어질 것이고, 그것이 결국 소비 감소로 이어져서 지속적인 침체국면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inequality, 불평등 문제입니다. 아마 불평등 문제가 지금 코로나와 관련해서 세계적으로 가장 핫한 이슈 중 하나일 겁니다. 불평등 문제와 관

련해서 크게 세 가지 이슈가 있는데, 소득 불평등, 건강 불평등, 정보 불평등입니다. 한국이나 일본에 해당되기도 하고 해당이 안 되는 이야기도 있긴 한데요. 첫 번째는 소득 불평등입니다. 저소득층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봉쇄 정책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섹터에 고용되어 있습니다. 대면해야 하는 일을 하는 업장에 많이 고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될 경우에 가장 먼저 실업의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저소득층입니다. 두 번째는 건강 불평등입니다. 고소득층은 감염 위험이 낮고 인구밀도가 낮은 곳에 거주할 확률이 높습니다. 한국은 고소득층이 밀도 높은 강남에 산다는 점에서 맞지 않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저소득층이 건강 측면에서도 불평등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보 불평등인데 고소득층이 정보 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정보 불평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제하에 최근에 Morikawa의 연구가 발표되었는데요. 코로나 19 이후의 재택근무에 관한 연구를 했습니다. 분석을 해 봤더니 고학력, 고임금, 대도시의 대기업에 다니는 화이트칼라 노동자가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예측 가능한 결과이긴 한데,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노동자들, 그러니까 고학력, 고임금, 대도시에 있는 대기업에 다니는 화이트칼라 노동자들은 재택근무를 해도 생산성이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회사를 가나 재택근무를 하나 생산성에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저학력 저임금 중소기업의 블루 컬러 노동자들은 생산성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결국 기업이 앞으로도 고학력 고임금 대기업 화이트칼라 노동자를 중심으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고요. 결국 이런 대기업 노동자들이 상대적으로 재택근무를 많이 하니까 감염 리스크도 낮아지고, 외출 자제 조치를 계속 이어나가면서 경제적 격차가 더 벌어지는 거죠.

이 연구가 주는 함의가 무엇인지 보면, 앞으로 2차, 3차 유행이 올 경우에 반복적으로 외출 자제 조치를 하면 처음에는 잘 됐는데, 두 번째, 세 번째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코로나에 걸려서 죽는 것보다 굶어 죽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가 격리 조치를 하라고 해도 그걸 어기고 일하러 간다는 거죠. 2차, 3차 유행이 올 경우에 경제 측면의 인센티브가 크게 작용해서 결국에는 방역 대책이 전혀 먹혀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이 연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불평 등 문제를 어떻게 해소해야 될 것인가가 가장 큰 숙제 중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지금 분야별로 계속해서 연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정리하면서 일본경제의 코로나 충격에 관한 전체적인 특징들을 올해 말까지 한번 정리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

발표 감사드립니다. 내용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수치들과 내용들이 담겨 있고, 또 아까 몇 번이나 나온 불확실성 속에 있는 현재 일본의 경제상황이나 정책, 정부와 대응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충실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공부가 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오늘 학술회의 내용을 조만간 보고서 형식으로 발행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의 풍성한 내용들을 다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신 박승현 교수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선생님께서는 동경대학 종합문화연구소에서 문화인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주로 도쿄 공공단지의 고령화와 재건축에 관한 학위논문을 기초로 하셔서 『늙어가는 단지(老いゆく団地)』라는 귀한 저서를 발행하시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도 일본의 재난과 고령화 지역과 시민 사회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지금 일본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벌어지고 있는 사회 상황들을 가장 실시간으로 추적하셨기 때문에 오늘 가장 큰 공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발표 부탁드립니다.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관정일본연구 제2회 학술회의

코로나19 COVID-19와 일본

발표 4

팬데믹 이후의 일본사회: 재난, 불안과 자숙, 올림픽

박승현

서울대 일본연구소 연구교수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의 박승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문화인류학 전공자로서 방학 때면 일본 현지조사를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 일본에 못 가게 된 상황 속에서 코로나19를 주제로 발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가 한편으로는 개인적으로 새로운 연구방법을 생각을 해보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었고요. 또 한편으론 오늘 학술회의에서 앞선 발표들을 들으면서 코로나19야말로 학제적인 연구가 필요한 주제이고 앞으로 조사를 많이 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일본의 사회의 문화적 배경, 그리고 일본 사회의 어떤 특성, 그리고 일본적인 상황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사를 통해서 일본의 코로나19 이후를 생각해 보는 그런 취지로 발표 준비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일본과 한국의 1월부터의 코로나19 상황을 시간 축을 맞춰서 한번 봤는데요. 한국이 먼저 이렇게 1차 감염 폭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의 감염 증가가 4월, 5월에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일본과 한국이 조금 잠잠하다가 일본에서 7월부터 다시 이렇게 감염 폭발이 있었고 지금은 조금 주춤한 상황입니다. 한국은 한동안 안정적이었습니다. 제가 발표 준비를 하는 동안에도 계속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러다 지난 주말부터 갑자기 다시 감염 폭발이 예상되면서

‘노력하면 보답이 있는 사회다’라는 응답 그다음에 ‘다른 사람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회다’라는 그런 응답들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많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그 시민 사회의 변화 사회관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향후 한일 간의 시민 사회의 소통이라든지 협력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훨씬 더 긍정적인 신호다’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발표를 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앞으로의 추이를 알 수 없긴 하지만 저는 일본과 한국의 감염 추이를 비교하면서 양국 사이에 굉장히 유사점이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일본 자료를 그대로 가져온 일본어 자료라서 죄송한데요.

여기를 보면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그리고 중국과 독일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상황을 보면 치사율, 즉 걸린 사람이 얼마나 죽느냐 하는 치사율에서 일본이 2.0이고 한국이 1.9입니다. 100만 명당 얼마나 많이 감염이 되었는가에 있어서도 여기 보면 미국, 브라질, 스페인 그다음 독일 러시아가 있는데요. 이에 비교를 해 본다면 일본과 한국의 치사율이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의료보건의 수준을 보면요. 한국과 일본의 기대수명이 세계적으로 80세가 넘는 가장 높은 기대수명을 가지고 있는 국가이고 또 한편으로는 인구 천 명당 병상 수 역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한국이 1000명당 12.3, 일본 13.1로 1위와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이 두 나라가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통 한국 상황을 ‘선제적이다’ 다음에 ‘전방위적이다’라고 한다면, 일본은 그에 비해 좀 ‘제한적이다’, ‘사후적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곤 합니다. 저는 이러한 차이가 왜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까 기조 강연을 해 주신 김태형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의 저변에는, 다시 말해 K방역의 저변에는 사스, 메르스 그리고 세월호 참사라고 하는 사회적 정치적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재난의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올해 대규모 홍수로 인해서 많은 사망자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것을 보도하면서 ‘9년 만에 최악의 홍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은 2011년에 대규모 홍수가 있었고 9년 만에 이런 큰 자연재해가 있었습니다.

2011년이라고 하면 일본에서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던 해이죠. 그 다음에 최근 5년을 봐도 구마모토 지진, 오사카 지진, 서일본 호우, 동일본 태풍, 구마모토 홍수 등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자연재해들이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남해 트라프 거대지진 및 도시 직하형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회적 불안들이 굉장히 일상적으로 잠재해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재해에 대한 의식 조사를 보면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대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80% 가까이가 ‘느낀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아사히신문 1월 27일 기사를 보면 그 때 상황이 이미 우한에서 교민들이 일본으로 입국을 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이 기사를 보면 대규모 도시 직하형 지진이 일어날 경우에 ‘긴급 병원이나 구명센터들이 부족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를 보면 한 ‘1.2만명 가량이 이제 응급환자가 생길 수가 있다’ 라고 했고 여기서 그러면서 강조했던 게 뭐냐면 DMAT이라 하는 ‘재해파견의료팀의 대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DMAT이 또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요.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가 요코하마항에 2월 3일에 도착해서, 3월 1일에 28일 만에야 탑승자 전원이 하선하는 일이 있었고, 사망자가 최소 14명, 감염자가 712명, 그리고 검역관 의료진도 9명이나 감염이 됐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방역이 실패할 수가 있는가’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의료 관계자들이 실패 요인으로 많이 꼽는 것으로 DMAT이 여기에 투입에 되었었던 배경을 두고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DMAT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에서 그야말로 재난 파견 의료팀으로 동일본 대지진, 구마모토 대지진에 파견되었던 그 재해의료팀입니다. 재해의료팀이기 때문에 감염병에는 사실 어떤 적응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았고 그래서 대응이 좀 어려웠던 거죠.

DMAT을 이렇게 파견을 하기 위해서 가나가와현은 ‘지금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재해다’-우리가 재난이라고 많이 하고 일본은 ‘사이가이’ ‘재해’라고 많이 하죠-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요원으로서 DMAT을 요청했던 거죠. 그 후 3월 11일에 팬데믹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정부만 이렇게 재해 선언을 했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문예춘추에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본인이 프린세스호에 있었는데 이때 ‘나는 한신 대지진 당시가 떠올랐다’라고 합니다. 올해가 마침 한신 대지진 발생 25년이 된 해죠. ‘승객도 승무원도 이 배에서 재난을 만난 것은 마찬가지다. 나는 25년 전 한신 대지진 당시의 학교 교사들이 자기도 집에 못 가고 있으면서 피난소에서 사람들을 돌보다가 이제 쓰러지는 것들을 봤고 승무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때가 떠올랐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 외에도 동일본 대지진이라든지 이러한 기억들을 코로나19를 통해서 떠올리는 그런 글들을 종종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본의 코로나19라는 것은 일련의 재해의 연속선 상에 놓여 있는 복합재해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일본인들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모습이 ‘재난의 공동

경험, 공동의 기억, 공동의 불안,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재해의 연속선 상에서 일본의 방역의 추이를 보면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불안을 억제하는 사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얘기가 없었죠. PCR 검사 정확성을 의심한다거나 ‘PCR 검사를 확대하는 것이 사회적인 혼란을 키울 것이다. 어차피 PCR 검사를 해도 부정확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 양성이어도 증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지나친 검사가 사회 혼란을 키울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일본 사회에 있고요.

또 PCR 검사 자체가 적었다는 말도 있는데 여기 보면 7월 이후에는 PCR 검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를 국제적인 추세와 비교를 해보면 여전히 낮은 수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베 총리나 도쿄 도지사가 기자회견에서 ‘늘릴 것이다. 늘릴 것이다’ 했지만 결국 늘린 것은 7월 중순 감염 폭발 이후에나 가능했었고요.

한편으로 일본 사회에서 강조되고 있는 자숙이라고 하는 것은 ‘병원에 바로 오지 말라, 그것이 병원의 의료 자원을 고갈시킬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도 들어 있었다고 얘기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렇게 의료 붕괴에 대한 우려는 일본에서 굉장히 초기부터 있었습니다.

이것은 최근 자료들인데요. ‘오키나와에 있는 병상 수가 지금 이만큼 마련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이 이용되고 있다’, 그다음에 ‘오사카에서는 7월 1일에 비해서 7월 말에는 벌써 40%나 이렇게 병상 수의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식의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평상시 의료의 기능들을 마비시킬 수 있는 정도의 환자들이 생기면 안 된다. 그러면 살 수 있는 사람도 못 살게 된다’, 이런

식의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지역별로 어떻게 병상 이용률이 변하고 있는가를 계속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국적으로 보면 2만 개의 병상이 확보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안정적 수준이 아닌가’라는 하는 그런 느낌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야마나카 신야 교수가 업데이트한 홈페이지인데요. 줄곧 일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이 안일하다’라는 그런 비판들을 하고 메시지를 보내면서, 인용한 산케이 신문의 기사를 보면 ‘일본에서 3월, 4월에 도쿄의 사망자 수가 2005년의 평균에 비해서 1천 5백 명가량이 더 많았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조사가 있었던 1999년 이후에도 가장 높은 수치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신문에서는 ‘5월에는 더 많아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오늘 5월에 더 많아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다면 ‘3월, 4월에 이 초과 사망자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 것인가’, ‘PCR 검사 오류가 있었거나 아니면 검사나 치료를 못 받았거나 아니면 자숙으로 질병이 악화되었다’거나 등으로 ‘평상시보다 1천 5백 명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하는 그런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향후에 또 조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4월 7일에 긴급사태선언이 있었고 주로 그 내용은 자숙이었습니다. ‘일본 모델의 성공을 위해서는 자숙하자’ ‘스테이 홈’ 이라든지 ‘삼밀(三密)을 피하자’ 이런 요청들이 있었고요. 그다음 5월 25일 한 달 반 만에 사태가 전면 해제가 되면서 아베 수상은 당시 ‘불과 한 달 만에 코로나19 사태를 수습했다. 일본 모델의 힘을 보여주었다’ 이런 말이 있었고 ‘일본의 민도’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달 만에 ‘고 투 트래블 캠페인’ 여행 지원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 정부의 정책의 특징이 무엇인가.’ 이것은 그 정부 정책의 엄격도를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일단 이쪽의 그래프를 보시면 일본 정부 정책의 엄격도라는 것이 굉장히 연한 색깔로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은 그보다 조금 더 진한 색깔이고요. 여기에는 감염자가 많은 나라들에 비해서 일본 상황이 어떠한가를 보여줍니다. 휴교라든지, 휴업이라든지, 이벤트 자숙이라든지 이동 제한 같은 강제성이 굉장히 없다는 것이 기본적인 특성입니다. 여기 그 긴급사태 때의 수치를 이렇게 보여주고 6월 이후에는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정책이 느슨한 나라에 속하는 것이 지금 일본의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역시 강제력이 없이 자숙에 기대어서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는 나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보이는데요. 그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7·8월의 긴급사태 선언을 다시 해야 된다’는 말이 있는데도 ‘왜 안 하고 있는가’를 보면 이 감염자 수가 이 빨간색이고요. 도쿄의 감염자 수가 이 파란색이고 중증환자의 숫자가 이 빨간색입니다. 보면 긴급사태 선언이라든지 해제라는 것이 중증환자 수에 따라서 이루어졌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감염자 수보다도 중증환자 수가 조절이 되면 병원 붐괴 의료 붐괴를 일으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일단 검사수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비교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 통계상으로 지금은 중증 환자의 비율이 1%입니다. 긴급사태선언을 할 당시에는 5%였거든요. 감염자 중에 중증 환자의 비율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아베 수상은 이렇게 ‘지금은 중증환자가 많지 않고 병상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긴급사태를 재발령하지 않겠다’, ‘또 캠페인도 유

지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대체 왜 이렇게 중증 환자 수가 줄어들 수 있었는가' 이 그래프를 보면 가장 연한 파란색이 60대 이상의 감염자 숫자입니다. 그래서 4월에 보면 고령자의 감염률이 40% 가까웠습니다.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지식이 늘어나면서 어떻게 보면 고령자가 정말로 자숙하고 있고 고령자들의 사회적인 관계야말로 정말 봉쇄되고 있다고 예상할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는 10% 이하로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고령자들이 자숙을 함으로써 이렇게 중증 환자 수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고요. 지금 30대 이하의 감염자 수가 한 60% 가까이 되는데 30세 이하의 감염자가 사망한 경우는 총 5명인 경우였기 때문에 점점 '코로나19는 고령자에게 위험하다'는 것이 분명한겁니다. 80% 가까이가 70세 이상의 사망자인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식의 지금의 정책들이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고 있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문제들의 소용돌이 속에 방역 문제가 강하게 있을 텐데요. 여기 보면 '코로나19 감염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가 거의 뭐 90%입니다. 그 다음에 '긴급사태 선언을 다시 해야 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이게 지금 8월의 조사인데 '다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절반이 넘습니다. 그다음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는 것들이 지금 현재 더 많은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그 '여행 지원 캠페인도 일단 중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누군가에게는 '경제냐 방역이냐'가 아니라 '경제냐 생명이냐'라는 문제인데요. 일본의 고령화율이 30% 가까이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세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 그런 얘기도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올림픽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올림픽이 역사상 처음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연기를 하는 사태를 맞았는데 사실 아베 수상은 14조 이상 투입한 올림픽의 연기를 바라지 않았죠. 3월 16일 G7 회의에서도 '올림픽을 완전한 형태로 열 것이다'라고 했는데 일주일 만에 이렇게 연기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그때 했던 말이 '그렇다면 인류가 코로나19를 이긴 증거로 빅토리의 의미를 부여해서 올림픽을 개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후쿠시마 부흥의 올림픽에서, 올림픽 개최가 코로나19에 대한 승리라는 의미로 변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 이 NHK 여론조사는 어떻게 보면 그 국민과 정부와의 동상이몽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한데 일단 '1년 연기'에 대해서 '중지해야 된다', '더 연기해야 한다'는 것이 '내년 개최' 보다 더 많습니다. 이것은 올해 7월 조사인데요. 또 한편으로는 올림픽을 개최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경제라든지 비용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응답이 적었고 오히려 '선수들 노력에 보상받지 못하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다음으로는 대회 간소화에 대해서 70%가 '간소화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무관중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가 절반을 넘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가장 많은 응답이 '응원이 없으면 선수들이 실망할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많아서 조금 의외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뭔가 정부의 메시지가 국민들과는 조금 박자가 안 맞았고, 어쩌면 일본 시민 사회는 좀 다른 길로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 후쿠시마에서 있었던 조사에서는 '도쿄 올림픽이 동일본 대지진 피해지 실정을 알리는 데 어떤 도움이 되겠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더 많았고요. 또 한편으로는 '후쿠시마가 원래의 삶을 살 수 있는

곳이 될 것인가'라는 질문에 있어서도 최근 5년간 별로 변화가 없었습니다. '올림픽에 대한 어떤 기대 같은 것들이 사실 일본 사회에서 그다지 높지 않았다'라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것은 올해 6월의 기사입니다. 대졸 취업자가 이제 '과거 최대 98%였다. 신졸업자들이 이제 이렇게 많이 취업을 했다'라는 기사였습니다. 물론 이 기사 이후에 내정자 취소라든지 등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취업 빙하기가 올 것이다. 취업 빙하기가 다시 오면 안 된다'라는 얘기들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식의 기사를 보면 경제에 대해 체감온도가 상당히 높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또 지난 20년 간의 조사로 NHK의 사회 불평등 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일본 사회에는 어떤 사회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D라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실제로는 B 나 C로 하류층이 많다'라고 하는 응답이 일관되게 많았습니다. 이제 그 하류층이 더 많은 사회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제 일본 사회를 보여주는 것은 자기 스스로 계층 의식이 아래에 있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간인데요. '이 중간부터 아래에 있다', '난 중간보다 위에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해 볼 수가 있을 텐데 1999년에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나는 중간보다 조금 더 위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에는 '나는 중간보다 약간 더 아래에 있다'라고 한 사람들이 제일 많았습니다. 작년인 2019년 12월은 어땠는가 하면 '중간보다 조금 더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게 24% 그다음에 '이제 더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 이십 년보다 더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베 정치가 중시해왔던 게 경제성장이었는데 국민들은 점점 더 하류로 쏠려가고 있었다, 점점 더 '난 하류다'라고 느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사회의 취약계층들이 더 취약해지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면 이러한 경향은 더욱더 심해질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이 조사에서 일본의 사회관, 일본인의 사회관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보여줍니다. 한편으로 지난 이십 년 간 '돈이 중요하다', '학력이 중요하다', '출신 대학이 중요하다'라는 응답은 꾸준히 줄어들었습니다. 대신에 자연환경,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어떤 중요성이 꾸준히 늘어났죠. 또 한편으로는 '노력하면 보답이 있는 사회다'라는 응답 그다음에 '다른 사람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회다'라는 응답들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많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그 시민 사회의 변화 사회관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향후 한일 간의 시민 사회의 소통이라든지 협력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훨씬 더 긍정적인 신호다'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발표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발표 감사합니다. 일본 사회의 문화를 전공하시는 연구자로서 정말 다양한 방면에서 코로나를 매개로 우리가 일본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풍부한 정보와 또 깊은 해석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신문에서 단편적으로만 코로나 사태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듣고 있었던 우리에게 오늘 두 분 선생님뿐만 아니라 제1부의 세 선생님 모두가 지금 일본 사회가 코로나를 어떻게 겪고 있는지를 조금 더 맥락과 전체적인 흐름 안에서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그동안 좀 오해가 있으셨던 분들에겐 오해가 풀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새로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분 토론자 선생님을 모시고 오늘 발표에 대해서 뿐만이 아니라 일본 전반에 대해서, 코로나 상황에 관해서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토론자 선생님을 모셨기 때문에, 이분들을 함께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언론계에서 일본과 한국을 가장 잘 이해하시는 두 분의 섭외에 성공했다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심규선 선생님으로, 서울대 일본연구소 객원연구원이자 전 동아일보 도쿄특파원, 정치부장, 편집국장을 거쳐서 대기자를 역임하신 언론계의 일본통, 일본 전문 저널리스트이십니다. 두 번째로는 호리야마 아키코 마이니치신문 서울 지국장님을 모셨습니다. 올 2월부

터 36대 서울 외신 기자클럽 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30년 정도 언론기자로서 활동하시는 가운데, 약 7~8년 정도 한국에서 취재를 하셔서 아마 한국에 대해 가장 깊은 이해를 가지신 일본인 저널리스트가 아닌가요 합니다. 그럼 심규선 선생님 잘 부탁드립니다.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관정일본연구 제2회 학술회의

코로나19 COVID-19와 일본

지정토론

일시 2020년 8월 24일 월요일 13:30-17:30 장소 서울대학교 호암교

서울대 일본연구소 제2회 관정학술회의

코로나19 COVID-19

일시 2020.8.24.(월) 13:30-17:30
장소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컨벤션홀 2층 무궁화홀
주최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후원 관정이종환교육재단
문의 ijs@snu.ac.kr 02-880-8503

IJS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관정이종환

코로나19
COVID-19

코로나19
COVID-19

지정토론 1

심 규 선

전 동아일보 대기자, 서울대 일본연구소 객원연구원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심규선이라고 합니다.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우선 감사드립니다. 발표들을 들으면서, 가장 최근의 데이터와 한일 양국의 분위기를 전달해 주는 내용이어서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 느꼈던 것은, 코로나 문제가 처음 세계적인 관심을 모았을 때, 각 전문가라든가 싱크탱크들이 내놓는 글들은, 굉장히 거시적으로 코로나 이후 국제관계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혹은 각국의 대응 같은 것들에 집중되어 있던 데 비해서, 이번에는 좀 시간이 지나서 그런지, 굉장히 자세한 분석과 나라와 나라를 비교하는 관점에서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발표를 들으며 느꼈습니다. 또 하나의 변화는, 사실 기존 토론은 발표의 절반이나 3분의 1 정도밖에 주지 않는데, 20분을 쓰라는 것을 보니까 코로나 이후 학술회의 방식도 바뀐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아 고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분 선생님의 발표는 지상과 공중 얘기도 했습니다만, 일본을 지상의 정치·경제·사회 부문에서 자세히 바라다보고 이것을 총괄하는 것으로서 남기정 교수께서 어떻게 보면 다면적인 차원, 그러니까 미중관계·아시아·글로벌, 이 관계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 예측하고, 그 안에서 한일 관계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전망하는 내용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각 부분별 전문성에 관한

문제는 제가 이야기할 것이 못될 것 같고, 저는 역시 저널리즘 측면에서 남기정 교수가 발표한 한일 관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평상시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가능성, 전망을 좀 언급하는 것으로서 코멘트를 대신할까 합니다.

오늘 발표 1부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이런 기회를 통해 일본을 달리 보는 기회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4월 19일 모든 언론이 일본의 확진자와 사망자가 한국을 넘어섰다는 기사를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사실 그 시점에서 확진자와 사망자가 한국을 넘어선 나라는 일본 말고도 무수히 많았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벨기에, 스위스 등 엄청나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점은 보도가 안 되고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확진자와 사망자가 넘어섰다는 그 뉴스, 그것이 소비되는 것이 무엇일까. 그런데 오늘 여기서 발표자분들이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인구 100만당 사망자가 중국이 3명, 한국이 6명, 일본이 9명이었습니다. 소위 선진국으로 불린 나라들이 500명이 넘어서거나 안팎인 시점에서 오로지 한중일이 10명 이하라는 사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충분히 상찬 받아 마땅하다는 것이었는데, 다만 역사적인 문제로, 일본을 보는 눈이 왜곡되어 있어서, 이런 보도가 나온 것은 아닐까, 그런 면에서 오늘 같은 학술회의가 상대 국가를 바라보는 눈을 조금은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 관계는 좋지 않습니다. 저는 한일 관계의 희망을 살라미하는 단계에 들어섰다고 얘기합니다. 살라미는 이탈리아 소시지의 일종인데, 북한이 살라미 전술이라는 것을 사용한 것에서 유명해진 용어입니다. 한 가지 문제를 계속 쪼개서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많은 반대급부를 얻어내는 전술을 살라미 전술이라 하고, 북한 비핵화 과정 속에서 한국 국민들도 알게 되었습

니다. 저는 요즘 들어서 한일 관계가 너무 악화되다 보니까 희망을 쪼개서 그것을 연명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희망이 무엇이었냐면,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와 인권을 공유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잘 될 것이라는 것이었지만 잘 안됐습니다. 두 번째는 국제사회에서 손을 잡으면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그런데 잘 안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북한 비핵화 문제가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면서 북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 도울 수 있지 않을까였는데, 그것도 잘 안됐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코로나를 매개로 해서 한일이 잘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단계, 즉 우리가 늘 어려움에 봉착할 때마다 새로운 희망이었던 메시지를 찾아서 코로나까지 오지 않았는가. 그런데 남기정 교수께서 코로나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시고, 그럴 수도 있다고 답했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저는 코로나19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안된다고, 즉 코로나19가 게임 체인저가 될 만한 충분한 자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가지고 한국과 일본을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이랄까 의지를 가진 사람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연극의 3요소에 대해 흔히 희곡·배우·관객이 있다고들 합니다. 지금 희곡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잘하면 되지 않을까하는 희곡이 나와 있습니다. 관객도 있습니다. 잘 되었으면 좋겠네, 잘되지 않을까하고 희망을 거는 관객도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가 없습니다. 이 희곡을 잘 읽어서 기다리는 관객들한테 좋은 연기를 통해 보여줄 수 있는 배우가 없다. 그게 지금 현실이 아니겠는가 하는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제가 볼 때는 한일 관계가 좀 나

빠졌다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 특징이 옛날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첫 번째는 갈라파고스 현상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국제사회에서 볼 때 역사문제도 물론 대단히 중요하지만, 대부분 극복을 하든 봉합을 하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한일 관계에 있어서만은 여전히 역사문제가 주류를 이루어 갈라파고스 같은데, 병으로 따지자면 희귀병을 앓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격벽이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역사문제로 시작되면 역사로 끝났어야 하는데, 그것이 경제로 가고, 외교로도 가고, 안보로도 가고, 군사문제로까지 가버리는 벽이 사라졌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병으로 치면 합병증입니다. 세 번째는 국제적인 룰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는 이렇게 양보와 타협을 해서 풀어야 한다는 룰이 있는데 양쪽 모두 양보와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보와 타협을 하지 않으면서도, 자기네들이 역사문제를 가지고 싸우면서도 역사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짓말도 하고 있습니다. 약으로 치면 내성이 생겨서 듣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위 고질병이 됐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여기까지 오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한국과 일본의 국력에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역사를 보는 해석의 문제가 최근 들어 선진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잘못이라고 생각되지 않았던 것이 최근에는 잘못이라고 인식되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종군위안부 문제라든가 강제징용 문제를 예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두 가지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일본이 겸허하게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한국은 일본을 용서하면 끝날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한국과 일본은 정반대의 길을 걸어서 일본은 스스로를 용서해버렸고 한국은 역사의 늪에 빠져버려, 결국은 접점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상태에 오지 않

왔는가하는 생각이 제 첫 번째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국민감정입니다. 국민감정이 모든 것에 우선하기 때문에, 위정자들의 타협의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협상의 경직성이라고 표현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가지만 자칫 잘못하면 죽는다는 뜻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경직성이 초래된 이유 중 하나가, 일본이 바뀌었다는 것을 한국이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2012년 8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그 당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여론조사가 직전 여론 조사보다 급전직하로 내려가서 지금까지도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중에 상당 부분은, 우리가 계속해서 무언가를 요구하고 밀어붙이면 바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어떤 결과든 바뀐 일본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하지 않으면 옳은 해답이 나오지 않는데, 아직까지도 일본이 바뀌었다는 것을 이해조차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본에도 국민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만 국민이 있다고 하는 생각이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지만 이제는 일본에도 국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국내 정치적 이용 문제가 있는데, 남 교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변화 가능성 같은 것도 점치고 있습니다만, 저는 여전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사실 코로나 문제만 없었다면 이번 국회의원 선거가 한일 전이라는 프레임에서 치러졌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 저는 굉장히 우려하고 있으며,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국제적 합의가 굉장히 가벼워졌다는 점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정상끼리의 만남이라던가 정상이 모여서 만든 페이퍼나 합의에 무게가 있었는데, 돌이켜보면 수많은 코로나 이후의 합의 중 기억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내막

을 살펴보면 꼼꼼하게 무언가를 써놨는데, 그것이 전혀 작동되지 않습니다. 약속의 무게가 그만큼 떨어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평상시에 사이가 안 좋은 부부가 외식을 갔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보기에 그들 보고 사이가 좋다고 평가할지 모르지만, 내막을 살펴보면 집안의 가스레인지가 고장 나서 함께 먹었을 뿐입니다. 이웃사람들끼리 버스를 타고 어디를 놀러 갔습니다. 굉장히 사이가 좋은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공동으로 내는 돈이 조금 남아서 갔을 뿐입니다. 마을끼리 전부 모여서 가을 체육대회를 한다고 해서 안 좋았던 관계가 금방 회복될 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제가 볼 때는 외식을 가든, 여행을 가든, 체육대회를 열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것이 얼마나 재미있고, 그것이 다음 세대에게도 물려줄 만한 것이라고 진심으로 느끼지 않는 한은, 밖에서 아무리 아름답게 평가해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제가 보기에 코로나 전후로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 양보와 타협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100%의 승리나 패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는 국제적인 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보와 타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역시 리더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리더는 국민들의 뜻을 수렴해야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이제는 국민을 위해서라면 약간의 상처를 받더라도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리더십이 발휘할 수밖에 없고, 국민들도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리더십에 응당했던 대통령들로 세 분을 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65년 박정희 대통령, 98년도 문화개방의 김대중 대통령, 평가가 다소 어긋날 수 있지만 반대를 무릅쓰고 2015년 위안부 합의를 강행했던(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국민의 뜻을 거스르더라도 어떤 원칙과 소신을 따르고, 거기에 온전히 책임을 지는 경우가 없다면, 제가 보기에 한일관계는 바뀔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으로는 역시 대국민 설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다리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는 희망고문은 그만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식에게 삼수, 사수를 시키면서 “우리 아들은 하버드대학 갑니다”라고 하는 발언들이 우리 부모들의 허영심의 발현이라고 한다면, 그동안에 부모는 꿈에 부풀어 행복할지 모르지만 젊은이는 청춘을 잃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논리로, 한국과 일본은 지금 골병이 들고 있습니다. 희망 고문을 멈추고, 얻는 게 있다면 우리가 무언가를 내놓을 수밖에 없다는 목적을 분명히 해준다면 한국 국민들도 충분히 따라올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일본이 동시에 행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베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를 보면, 우리는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제시하세요. 그럼 우리도 그것을 평가해서 무언가를 내놓겠습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8·15 메시지도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자세로는 될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물밑 접근을 하든 고위 간부 접촉을 하든 간에 동시에 안을 만들어서 동시에 해결하고자 하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길게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논의된 것 중에서 흥미로웠던 점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지금 교수님께서서는 코로나가 몰고 오는 특징으로, 지구화의 정체, 국가의 귀환, 국경의 강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과거로 돌아가는 겁니다. 새로운 것이 아니라 과거로 돌아간다는 것인데, 사실 코로나는 과거로 회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로 추동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과학, 유통, 보건, 의료 등입니다. 과거 회귀형은 내셔널리즘을 부추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반면

미래 추동형 변화로 한일이 손잡을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미래 추동형 변화에 한일이 손잡는 방법을 고민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다음으로, 중견국 역할 논의에 대해 100% 발표자의 의견에 동조합니다만, 만약 중견국이라는 그룹이 생긴다면, 몇 가지 타입으로 나눌 수 있을 텐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인권을 중심으로 하는 중견국이라면, 한국과 일본이 키플레이어가 될 수밖에 없고, 키플레이어가 된다면, 역사문제로 뼈적거리는 이인삼각은 굉장히 위험하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미들 파워 스탠더드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역사문제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한국과 일본이 중견국 키플레이어로서 다른 나라들의 신뢰와 존경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12년 이후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발생한 현상 중 하나가, 매스컴이 문제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지적에 대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한일 관계가 좋았을 때는 매스컴이 잘해서 그런 것인가라는 반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아졌을 때도 매스컴은 상대국의 부정적 측면을 보도하는 것으로 일관했는데,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매스컴의 탓을 하는 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후배 기자나 상대국 기자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까지 한일의 매스컴은 펜과 마이크를 상대방에게만 들이밀고,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개선하도록 요구했는데 자기 내부로는 펜과 마이크를 들이민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상대만을 비판하기 위해 사용한 지면과 전파의 10분의 1만이라도, 자국민을 설득하는데 쓸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일본이 미즈기와(水際) 대책을 썼는지, 왜 의료 붕괴를 걱정했는지를 한국 언론이 설명하지 않으니, 일본 수상을 조롱하는 일만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 것이고, 반대로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왜 한국은

지정토론 2

예민하게 반응하는지, 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게 됐는지를 일본 언론이 안다면, 상대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호리야마 아키코

마이니치신문 서울지국장, 서울외신기자클럽 회장

마이니치신문 호리야마 지국장입니다. 오늘 네 분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는 역시 한일 관계에 있어 이 코로나19 상황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두 가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남기정 교수께서 말씀하신 지구화 세대와 관련된 것입니다. 저도 코로나 상황에 대해 국적을 넘어서 대응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일본으로 쉽게 갈 수가 없게 되어, 결과적으로 한국 정부로부터 방역 의무와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거꾸로 일본에 사는 주재원이나 유학생들도 일본 정부로부터 보호를 받으며 살고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는 각 나라는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주민을 보호해야 하고, 외국인들도 사는 나라의 주민의식을 강하게 가지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어떤 지역에서도 아무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 방향을 세계적으로 서로가 배우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 중에 일본 사회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이, ‘자숙’이라는 법적으로 애매한 대책을 일본정부가 장려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일어난 여러 가지 혼란입니다. 저도 한국에서 보면서 이해 못 했던 부분은 “코로나 자경단”이라고 일부 주민들이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는 사람에게 경찰

처럼 클레임을 하거나 가게에 휴업을 하도록 포스터를 붙이는 사태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방역에 협조하지 않는 당사자와 대화를 하지 않고 밤늦게 몰래 포스터를 붙이는 등 익명으로 항의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SNS의 배타주의적인 발언하고 비슷한 배타주의적 행동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일본은 대외적으로 쓰나미가 발생했을 때도 서로 돕고 인내심이 많다고 세계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왜 코로나 상황에 직면하여 이런 배타주의적인 행동들이 벌어지고 있을까 의아했습니다.

자세히 보면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이나 노인분들이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일본 내의 코로나 자경단과 혐한 커뮤니티가 공통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는 분석과 검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박승현 교수에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령자 커뮤니티에 대해 잘 아신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이 문제점은 한국도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정부는 국경 없는 K방역이 효과적이라고 해서, 입국자들에게 2주간의 격리조치를 하되, 초기에는 외국인도 포함해서 한국정부가 숙박비용도 검사비용도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외신 기자들은 그 부분을 높이 평가하고 보도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스크를 구하기가 어려운 3월에 1주일에 한번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공적으로 보장했을 때 거기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 않는 외국인들은 제외하면서 결과적으로 보험가입 의무가 없는 유학생들이 구입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한국 국민에게 재난 지원금이 지급되었지만 영주권자 빼고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저처럼 한국에서 일하고 세금을 여기서 납부하는 외국인도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한국에 입국할 때 정주 외국인도

재입국 허가를 의무화하는 입국관리 강화 조치가 6월부터 도입되었는데, 특혜 조치로 재외동포들은 예전대로 재입국 허가 없이 왕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인 보험료 가입문제나 해외 동포 우대는 방역과 차원이 다른 과제인데도 이 예민한 시기에 관련시켰기 때문에 외신 기자들은 한국 정부에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감염 문제에 있어서 왜 동포 우대 조치로 혈통을 기준으로 차별하는 것인지에 대한 비판은 구미계 미디어에서 예민하게 나왔습니다. 재일교포나 재미교포들이 투자나 경제 활동에 있어서 우대를 받는 조치를 방역정책과 관련했을 때 다른 외국인들에게 어떻게 보이는가에 대해 한국 사람의 인식이 약했다고 봅니다. 코로나 방역에 있어서 한국 내 외국인에 대한 대응은 관심도 높지 않아서, 외국인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일본의 코로나 자경단의 경우도 자신이 배타주의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한다기보다는 지역의 안전을 지키고 있다는 마음이 더 컸다고 봅니다.

코로나 상황 하에 소외된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 배경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한일 간에서 있다면, 코로나 자경단 문제를 넘어 혐한감정, 약자에 대한 차별문제까지 연결하면서 같이 분석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하나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은, 도쿄올림픽을 어떻게 해야 할지 다른 세 분 선생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이창민 교수님께, 경제적인 관점에서 만약 도쿄 올림픽이 취소되었을 때, 앞으로 일본이 어떤 타격을 입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남기정 교수님과 박정진 교수님께는, 도쿄올림픽이 국제적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아베 정권의 새로운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일 수

도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징용 문제 등 역사문제는 한일 관계의 차원을 넘어서 북일 관계도 포함한 한반도의 과거사 청산 문제로서 장기적으로 논의해야 하는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도쿄올림픽을 활용한 북일 대화가 한일역사 문제의 구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도쿄올림픽 개최는 어려워지고 있고,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 두 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올해 일본의 고시엔이라고 하는 고등학교 야구 대회가 코로나 때문에 공식적인 대회를 못하고 친선 시합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선수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멋진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줬다고 주최자에게 감사를 표하고, 관객 및 시청자들도 그런 원래 대회가 갖고 있던 의의를 확인하면서 감명을 받기도 했습니다. 올림픽도 지금 스폰서 중심으로 되어 있어, 본래의 올림픽 정신을 다소 잃어버린 상태인데, 도쿄올림픽을 통해 세계가 마음을 하나로 할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 방법에 대해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2년 후에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있는데, 이 행사의 개최도 불투명합니다. 평창에서 도쿄에, 베이징에 배턴터치하는 방법을 강구함으로써, 한중일 교류의 새로운 차원을 모색하는 방법이 없을까 궁금합니다.

이은경

토론자 두 분 말씀 감사드립니다. 사회자로서 실격이라는 자책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단 예정된 시간이 임박하고 있는데, 풍성한 이야기를 듣다보니 시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발표 반대 순으로 토론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질문을 받았는데요, 중복되는 이야기가 많아, 들으시고 같이 얘기했으면 좋겠다 싶으신 것은 각자의 차례 때 답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은 3분 정도로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질문으로 박승현 선생님께, 한일 의료가, 특히 일본의 의료가 최첨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일본은 초반부터 의료 붕괴를 걱정했던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남기정 교수님께서는 일본의 정부도 국민도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하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관계 개선이나 패러다임의 변화가 가능할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창민 선생님께서는, 방역과 경제가 충돌한다고 하셨는데, 일본은 경제 쪽에 방점을 둔 것이라고 이해했다고 합니다. 다만, 반대쪽의 선택은 불가능한 경제상황인지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박정진 선생님께서는, 코로나가 일본인의 정치적 관심 증가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더 넓게 말하자면 선거의 투표율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인가, 정권 교체의 가능성도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코로나로 인해 고용

상황이 나빠지고 있는데, 반면 일본은 98%에 가까운 고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용의 수치와 코로나가 일본에서 어떻게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물어보셨습니다. 일본의 민주주의의 특성이 방역에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 질문도 있었습니다.

박승현

일단, 의료 붕괴를 왜 처음부터 걱정을 했는가라고 할 때, 저는 ‘일본 사회의 기저에 재해에 대한 불안과 초고령화 사회라는 환경에 있어, 평상시의 의료수준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겠는가’라는 문제의식이 강하게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DMAT의 요코하마항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투입에 관해서도 독립의료, 독립병원들이 법인화된 배경도 있었습니다. 병원의 신자유주의화로 인해 정부가 초기에 의료 인력을 동원하기에 어려웠던 면들이 있었습니다.

고령자 문제가 있었는데, 고령자가 이 바이러스에 취약하다는 사실도 있었지만, 그 내부에는 세대 갈등 문제도 있었습니다.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호의 탑승자들은 대부분 돈 많은 고령자들’인 반면, ‘일을 하기 때문에 감염될 수밖에 없었던 20, 30대 젊은이들이’라는 대조가 있었습니다. 마스크 대란에 있어서도 ‘한가한 고령자들이 아침부터 마스크를 사려고 줄을 선다’는 불만이 발생해, ‘아침에는 마스크는 팔지 않습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붙었던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식의 세대갈등, 세대 간의 배타성이 발견되는 일이 있었고, 심지어는 고령자 모임에서 ‘우리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의료에서 배제가 되지 않도록 자기 의사를 제대로 밝혀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일본에서 알고 지내던 인포먼트들에 의하면, ‘다들 집에 계신다’고 하십니다. 일본의 고령자 복지라고 하는 것이 지역에서 어떻게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게 할 것인가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봉쇄가 된 것입니다. 다시 이것들을 회복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리라 예측됩니다.

한편으로는 코로나19와 외국인 문제도 그렇고, 코로나19와 프라이버시, 코로나19와 지역성의 문제 등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조사해나가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올림픽 문제에 대해 저는 어떻게든 소규모라도 올림픽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부흥의 올림픽’이라는 메시지였다가, 지금은 ‘재난의 올림픽’이 되었는데, 저는 인류의 승리라기보다는 ‘재난 공동체로서의 일본을 넘어 재난 공동체로서의 인류’라는 측면에서, 어떻게든 연대감의 표시로서 상징적인 행사들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못한 얘기들이 많지만, 앞으로도 코로나19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을 것이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민

경제학자들이 욕을 많이 먹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만, 그중 한 가지 예를 들어 환경오염을 0으로 만드는 것이 좋을까 하고 물어보면, 수질 오염을 0으로 만드는 것이 좋고, 대기 오염을 0으로 만드는 것이 좋다고 다들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공장을 가동하지 말라는 소리가 되기 때문에,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적정 오염 수준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와 관련한 방역과 경제 측면에서도 정부가 초반에 이런 식으로 대했습니다. 적정 감염 수준에서 관리하면서 어떻게 하면 경제 침체를 겪지 않고 버틸 수 있을까를 고민했는데, 그 선택이 일본의 경우에는 과도한 검사를 지양해서 의료 붕괴를 막는 것으로 정해진 겁니다. 반면 한국은 철저한 검역을 통해, 초기의 무증상자나 경증 환자까지 찾아내는 선택을 한 겁니다. 한국의 방법처럼 빨리 확진자를 찾아내서 다시 경제 제재를 푸는 방법이 결과적으로는 경제에 도움이 되었다고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만, 그렇다고 당시 일본의 선택이 현재 시점에서 틀렸다고 볼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의 유행이 다 끝나고 데이터가 나오면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의 정책 담당자들은 철저한 검사 이후 상황이 좋아지면 경제 활성화로 방향을 트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검사를 하지 않는 이유는, 아마도 정치적인 문제나 의사결정 문제와도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와서 방향키를 트는 것이 아마도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쉽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올림픽의 경우, 경제적으로 보면 이미 매몰비용이 많이 들어서 완전히 계륵이 되었습니다. 안 하면 손해, 하면 더 손해입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난 올림픽이라든지, 화상으로 한다든지 하는 방향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원래대로 올림픽을 치렀으면 입장권수입, 중계권수입, 관광수입, 이런 경제 유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발생하기 이전 상황을 보시면 일본의 상황이 나쁘지 않았던 게, 아베노믹스 경기라는 것이 전후 최장 활황 경기였기 때문에, 아베 총리 개인으로 봐도 이 올림픽을 화룡점정으로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좌초된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일본 올림픽이 도움이 될 것이냐 할 때 제가 보기엔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정진

아직까지 한국이나 일본의 방역정책 자체에 대해 평가하기에는 이르다고 봅니다. 먼저 일본의 ‘애매한’ 정책들은 정책결정 과정의 결함과 비상체제의 결여에 있었습니다. 한편, 일본은 과거의 일본이 아니며 앞으로도 바뀌어갈 것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일본의 국가 전력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앞으로의 한일 관계도 보다 전략적

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화를 직시하면, 일본의 입장에서 한국이 갖는 전략적 이해관계는 상당히 악화되었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전통적인 한미일 안보 협력이 변화하고 있고, 일본의 독자적인 대북 접근도 주시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호리야마 지국장님의 질문 중, 만약 도쿄 올림픽이 개최되었을 경우 북핵 문제에 대한 아베 총리의 접근 시도, 그리고 그것을 둘러싼 한일 관계의 도약 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일본의 변화된 한반도 전략에 비춰본다면 도쿄올림픽이 만약 개최되었을 경우 일본의 적극적인 대북 접근 시도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한일 관계의 새로운 도약으로 작용될지는 조금 부정적 혹은 비관적으로 봅니다.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조만간 총선거가 있을 것입니다. 아베 수상이 어떤 선택을 하던 결국 자민당이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야당의 존재감이 약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저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요인은 자민당 그 자체에 있다고 봅니다. 일본 사회가 우경화되었다는 이유로 자민당의 승리를 예견할 수 없습니다. 특히 아베 수상의 지지기반인 30대 이하의 젊은 세대는 애초부터 자민당을 우경적인 정당이라고 보지 않는 한편, 야당을 자민당보다 보수적인 정

당으로 인식하기도 합니다. 아베 수상과 자민당의 이념적 색채와는 별개로 아베 내각과 자민당 정권은 적어도 국내 정책에 있어서만큼은 극우적인 정책을 전개한 적이 없습니다. 야당의 리버럴한 정책 아젠다를 자민당이 적극적으로 포섭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다가올 총선거 과정에서도 자민당 주도의 정치는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감정은 아베 정권에 대해 실망감이 있겠지만 그것이 어떤 새로운 인식의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기정

짧은 시간 동안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조금 과격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가 한일관계에 있어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인가라는 부분과 관련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승-전-코로나19. 말이 이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문명사회의 전환시점에서 코로나19가 가지는 의미를 파악하게 되면 세상이 전혀 달라 보일 것이라는 얘기이죠. 제가 발제한 내용 중에서 조금 참조될 수 있는 부분은 글로벌리즘과 코로나19에 관해 얘기 드렸던 부분입니다. 글로벌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공생(Commensalism)과 복원(Restoration)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군사력과 자본으로 국가 간의 경계를 허물고 세계를 하나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로써 공생하여 원래 하나였던 지구를 복원하는 것으로의 전환

을 코로나19가 마련했고 그것을 이해하게 되면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는 지도자가 나타나게 되면 정말로 세상은 바뀌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갈라파고스 현상을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공간에 한국과 일본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발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Chronopolitics의 관점에서 본다면 ‘혹성탈출’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미 25세기에 가 있는데 19세기적 방법으로 이 세계를 보고 있는 것이죠. 한일관계도 어떻게 보면 역사문제, 전염병 문제, 국제적 룰을 발동시키지 않는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있는 현상들을 19세기의 논리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체로서 한일관계는 21세기에 가 있고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데 계속해서 그러한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어쩌면 해법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단순히 코로나19를 중심으로 해서 코로나19를 통제하기 위한 협력을 해야 한대라고 한다면 아마 그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고 의미가 없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는 이미 게임의 룰을 바꿔 뒀고 그 룰을 이해하는 사람이 새로운 한일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고 리드해 나갈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또 저는 공시송달 이후 일본제철이 즉시항고를 했다는 것이나 여기에 대해 한국이 대응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 코로나19가 바꾼 한일관계가 거기에도 보일 것 같습니다. 한국도 일본도 코로나19 앞에서 건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본도 한국도 일단 참아보자, 기회를 잡아보자,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즉 제 말씀은 이 게임의 논법을 빨리 읽는 사람이 아마도 새로운 한일관계를 만들어 갈 것이다, 거기서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저는 한국에게 조금 더 기회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변화라고 하는 것이 반가운 사람과 반갑지 않은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주류가 계속 이른바 ‘자유롭고 개방적인 국제질서’라는 것에 함몰되어 있는 이상 아마도 코로나19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한국은 변화를 필요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 변화라도 활용할 것이고 그러한 태도가 또다시 변화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또 올림픽도 그러합니다. 올림픽이라는 것이 현재 상당히 타락해 있죠. 이렇게 타락되어 있는 올림픽을 새로운 문명사 속에서의 올림픽으로 재생하는 노력이 있다면 성공할 것입니다. 올림픽 재생운동 같은 것을 일본이 시작할 수 있다고 한다면 말이죠. 상업적인 메가 이벤트가 되어 있는 올림픽을 관객 없는 올림픽으로 치르는 발상의 전환이 생겨나면 성공할지도 모릅니다. 관광과 관객이 필요한 올림픽이지만 그런 것 없이 할 수 있는 올림픽을 상상해

낸다면 그것은 일본이 주도하는 새로운 문명사회가 될 수 있겠죠. 또 인간의 활동 무대가 공간이 아닌 시간으로 변화한다고 했을 때는, 예를 들어 100미터 달리기에서는 사람들이 같은 공간에서 같은 조건 속에서 더 빨리 달리는 것이 관건인데, 10초 달리기라는 것을 여러 공간에서 하는 것이죠. 또는 2시간 달리기를 여러 공간에서 해보는 것이죠. 그것을 영상으로 한군데 모아보는 게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발상의 전환을 계속해서 생각해 보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겠단 생각되는데요, 어느 리더가 그것을 먼저 시도할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

감사합니다. 한 바퀴 더 돌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으시겠지만, 발표자 선생님들의 말씀은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론자 두 분 선생님께 부탁 드리겠습니다.

심규선

아까 질문 중에 괴기스러운 질문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러는데요. 한일 관계에 오랫동안 몸담아온 입장으로 몸이 따갑긴 하지만, 그 해법을 말씀드리자면, 한국 언론은 지금까지 성역을 깨면서 성장해왔습니다. 첫 번째 성역인 청와대, 국회, 군부, 정보기관을 조금씩 깨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아직도 못 깬 것이 있습니다. 제 평생 시 말을 빌린다면 이것이 한국의 마지막 성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누가 가르쳐서 그런 것이 아니고, 기자

스스로 자기 검열에 따라 그렇게 된다는 면에서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그에 따라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일본 관련 기사는 혼자서 쓰는 것이 아니라 언론사 전체가 토론하며 썼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부적으로는 공부모임을 만든다거나, 특별 현안이 있을 때 전문가를 모셔서 의견을 듣는다거나, 그다음에 언론사가 일본에 대해 어떤 뚜렷한 부정적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은 그것대로 보도를 하되, 그와 반대되는 전문가들의 글을 받아서 기고를 받는 등 이런 몇 가지 방법을 통해 중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호리야마 아키코

코로나가 일본 정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소외되지 않은 사회를 만든다는 아젠다는 원래는 민주당이 잘 하는 분야였는데요, 계승된 입헌민주당이 주장하고 있지만 지지율이 낮아서 정책 실현에 한계가 있습니다. 자민당을 비판하는 표가 어디에 가냐고 보면, 일본 유신회(日本維新の会)라는, 자민당보다 보수적인 정당에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유신계 의원들의 관동진출을 도와주었던 도쿄도지사나 유신 간부인 오사카 도지사는 아베 총리보다 효율적인 코로나 대책을 펼치고 있다고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유신 의원은 아직 중의원에서 소수파고 바로 유신 정권이 될 가능성은 없지만, 일본 보수의 재개편 과정에서 대외국인 정책이 쟁점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유신은 역사수정주의 배타주의적인 이념에 가깝기 때문에 일본 코로나 방역을 분석할 때 유신세력의 정치적인 영향에 대해서 잘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은경

감사합니다. 발표 중에도 재해 공동체라는 말이 나왔는데, 사실 일본만이 아니라 한일을 포괄해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하는 생활공동체이기도 하고, 재해 공동체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일본에 관한 많은 학술행사를 했지만, 코로나에 관하여야 말로 우리가 경험하는 동시대 재해기 때문에, 여기서 듣고 계시는 분들도 몰입도가 높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의 뜻을 담아 김현철 소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김현철

장시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본연구소는 서울대 내에 위치하면서 항상 일본에 관한 새로운 문제를 지속적으로 연구해온 새로운 싱크탱크 중에 하나입니다. 과거사 문제나 새로운 문제 등 다른 이슈를 가지고 새로운 세미나 및 학술회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오늘 보내 주신 성원처럼 저희 연구소와 관정학술회의를 계속 지지해 주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제2회 관정학술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COVID-19 와 일본

일시 2020년 8월 24일 화요일 13:30-17:30

장소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컨벤션홀 (2층) 무궁화홀

주최 OHS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공동주최 한국국제협력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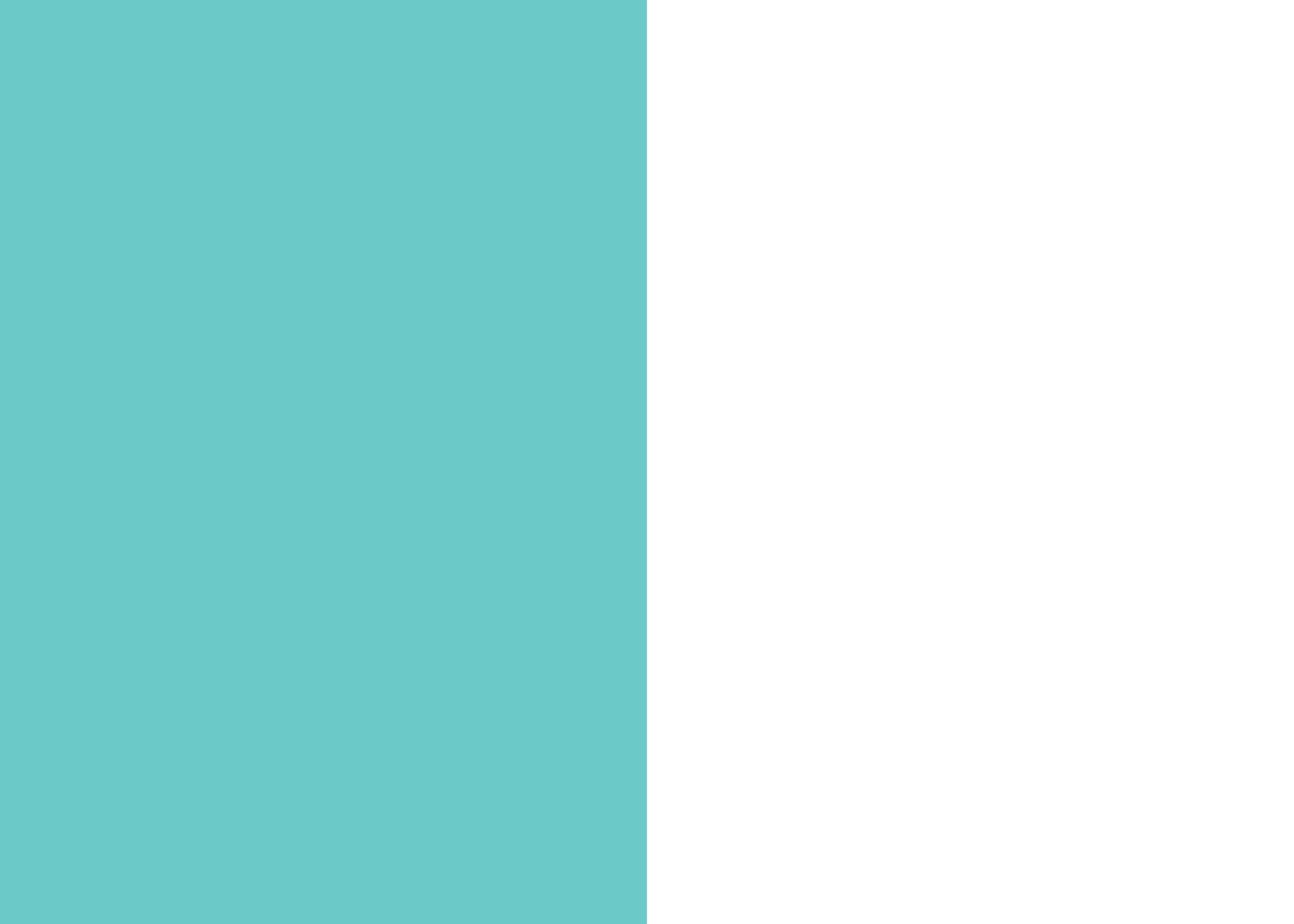
서울대 일본연구소 제2회 관장학술대회

코로나19와 COVID-19 일본

기념 촬영







관정이중환교육재단은 삼영화학그룹 이종환 회장의 사재 출연으로 2000년 6월 23일 설립하였다.

2019년 현재 운용자산이 1조원 이상으로 확충되어,

국내는 물론 동아시아 최대 규모의 장학 교육 재단으로 성장했다.

재단은 이 기본 재산에서 나오는 매년 200억원의 과실 수입금으로

국내외 장학 사업, 서울대 관정도서관 건립, 대학 및 유명 연구소의 교육 및 연구 지원, 사회 복지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재단의 사업은 인문, 사회, 과학, 문화 등의 전 분야에 걸쳐 세계 유수의 인재를 육성해서

인류공영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 원동력은

“나라나 기업이나 살림은 재산이 아니라 사람이 키운다.”

“돈을 버는 데는 천사처럼 하지 못했어도 돈을 쓰는 데는 천사처럼 하련다.”는

관정 이종환 회장의 신념과 정신에서 비롯하였다.

서울대 일본연구소는 관정이중환교육재단의 설립 정신과 활동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고자 한다.

한국과 일본, 나아가 인류 사회에서 빛나는 세계적 연구 거점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한다.



후원



관정이중환교육재단
KWANGJEONG EDUCATIONAL FOUNDATION